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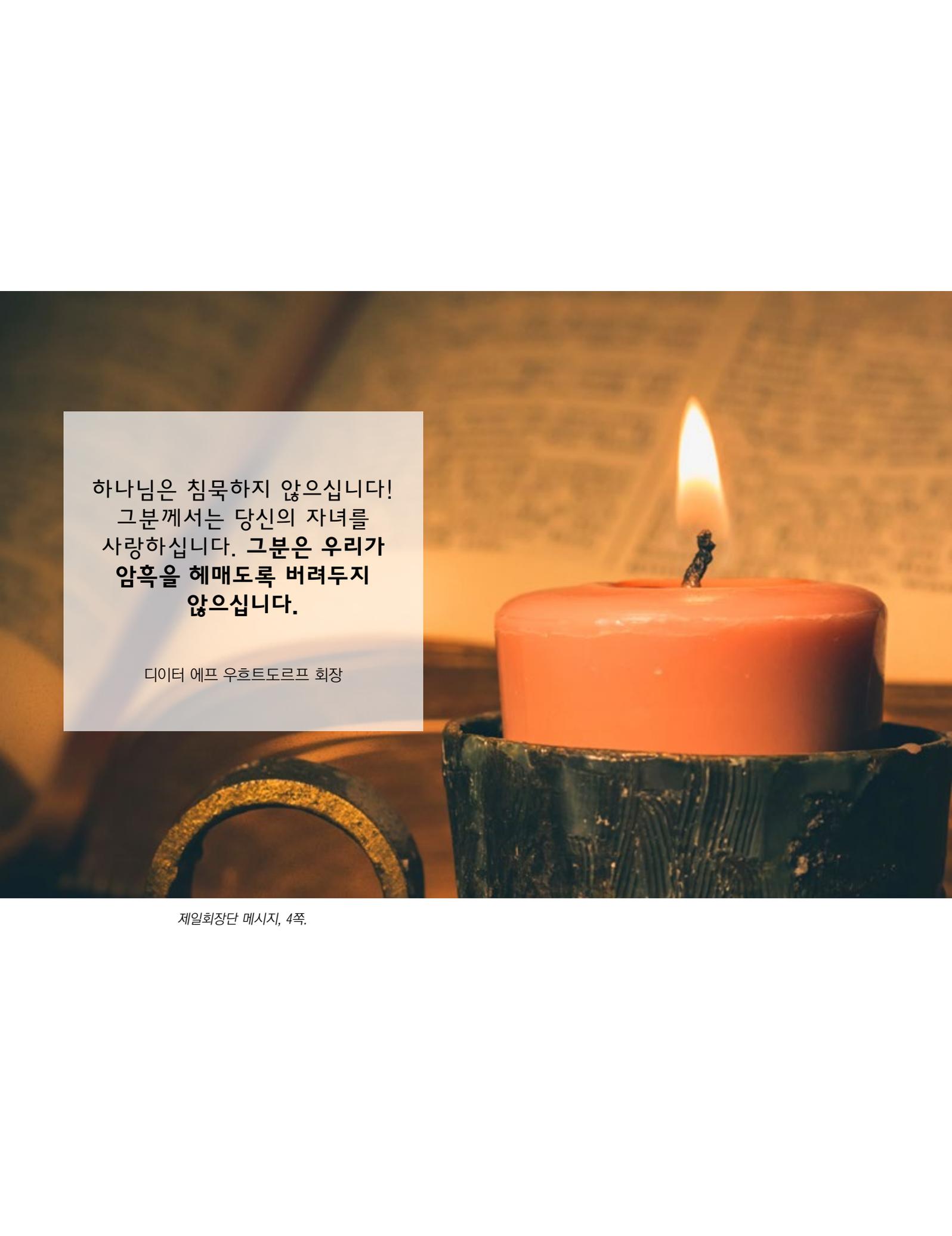
리아호나

우리 가족을 고양시킬
공동의 이상 세우기,
28쪽

악을 선으로 보이게 하는 사탄의
계책 꿰뚫어 보기, 18쪽

조셉 스미스: “저는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 34쪽

상호부조회 자매들: 서로를 돌보는
방법, 7쪽, 8쪽, 10쪽

A lit candle in a dark holder with an open book in the background. The candle is lit, and the flame is bright. The background is a warm, golden-brown color, suggesting a lamp or a fire. The candle is in the foreground, and the book is in the background. The text is overlaid on a semi-transparent white box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암흑을 헤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메시지, 4쪽.



교회 본부 기사

- 8 연단에서: 방문 교사는 하나님의 대표자
앨리스 시 스미스
- 10 교회에서 봉사하며: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
네티 에이치 프랜시스
- 12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4 우리는 믿는다: 우리 희망의 근원
- 16 단상: 일출
던 젠슨
- 38 신앙의 초상
크리스티안 칼손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원리:
자매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특집 기사

- 18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보일 때
쿠엔틴 엘 쿡 장로
대적의 가장 유용한 도구는 인식 체계를 바꾸어,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왜곡하는 것이다.
- 26 고대의 성막 둘러보기
성막 안의 상징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 28 가족: 행복의 샘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우리는 가족을 위한 이상을 세우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34 성도들: 교회 이야기 — 제2장:
그의 말을 들으라
“때는 ...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본 호 리아호나 기사는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기 전에 준비되었음.



48

44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성전을 향한 여정
 에프레인 로드리게스
 위태로운 정치 상황과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48 어머니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다
 소니아 파디아-로메로
 어머니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침내 한 가지가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도움말: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50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간증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에 대해 배우도록
 돕는다.

54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여러분에 관한 사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구주의
 계명은 단지 가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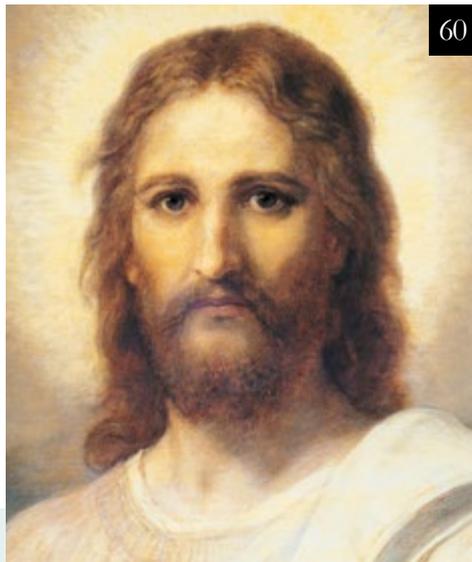
56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나는 곧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평생 축복을 받았다.

60 자신을 용서하는 열쇠
 매디슨 차일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
 의지할 때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마침내 배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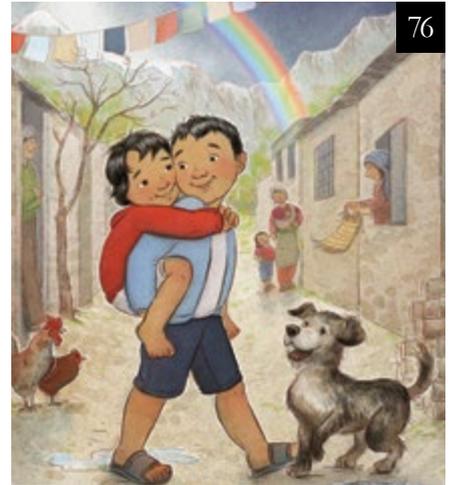
62 포스터: 구주의 구속 권능

63 해답을 찾아서
 내가 완전히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4 우리들 공간



60



76

66 빛을 비추라: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는 봉사와 선교 사업,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어요.

68 글을 쓰기로 했어요
 유스티나 리히너
 재능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70 언제나 형 동생
 조던 라이트
 우리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기에, 무슨 일이 있든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72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73 나는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약

74 음악: 갯세마네

76 경전 이야기: 노아
 킴 웹 리드

79 색칠하기: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우스, 앤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 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레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넷, 캐럴 에프 맥콩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보니 에이치 코든,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쉐런 윌링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즈, 에릭 더블유 코우퍼스키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캔넨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프랜시스카 울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러빈, 로리 플라,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제슨, 샬라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머리사 울슨

편집 인턴: 새라 시 키난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널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힐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우이, 에밀리 치예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캐티 브리디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앨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넬슨, 데렉 리차드슨

사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브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4호, 제55권, 제3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8년 3월 1일(일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국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소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r 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rch 2018 Vol. 42 No. 3.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인터넷 활용하기



l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서 누군가와 나눌 만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아 보십시오.(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l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워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미지: GETTY IMAGES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38, 40, 64

가족, 18, 28

간증, 50, 72

결혼, 18, 28, 44, 63

겸손, 10, 34

경전, 73

교회 부름, 10, 41

구원의 계획, 14, 16, 18, 50, 60, 70

기도, 4, 7, 34, 42, 43, 63, 64, 66

방문 교육, 7, 8

봉사, 8, 10

사망, 16, 70

선교 사업, 48, 64, 66

선지자, 50, 56, 76,

선택의지, 18, 63, 68

성약, 73

성전, 44, 48

속죄, 10, 12, 50, 54, 60, 62,

63, 74, 80

역경, 12

연차 대회, 4, 12

예수 그리스도, 14, 28, 34, 50,

54, 60, 62, 72, 74, 80

재정, 20

조셉 스미스, 34

지혜의 말씀, 18

하나님 아버지, 4, 34, 42, 79

활동 촉진, 41

회개, 60, 63

회복, 4, 34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는 경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하신 일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¹ 그분은 아담과 이브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귀중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담이나 걱정을 안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들과 대화하셨습니다. 대대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며,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들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는 진리를 간증했습니다.²

태초에 시작된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그분이 친히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 중 몇몇을 일으켜 세우시어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마치 [그분]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이도록 권고받습니다.³ 구주께서는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⁴

이 말씀은 회복에 관한 가장 영광스럽고 고무적이며 희망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암흑을

헤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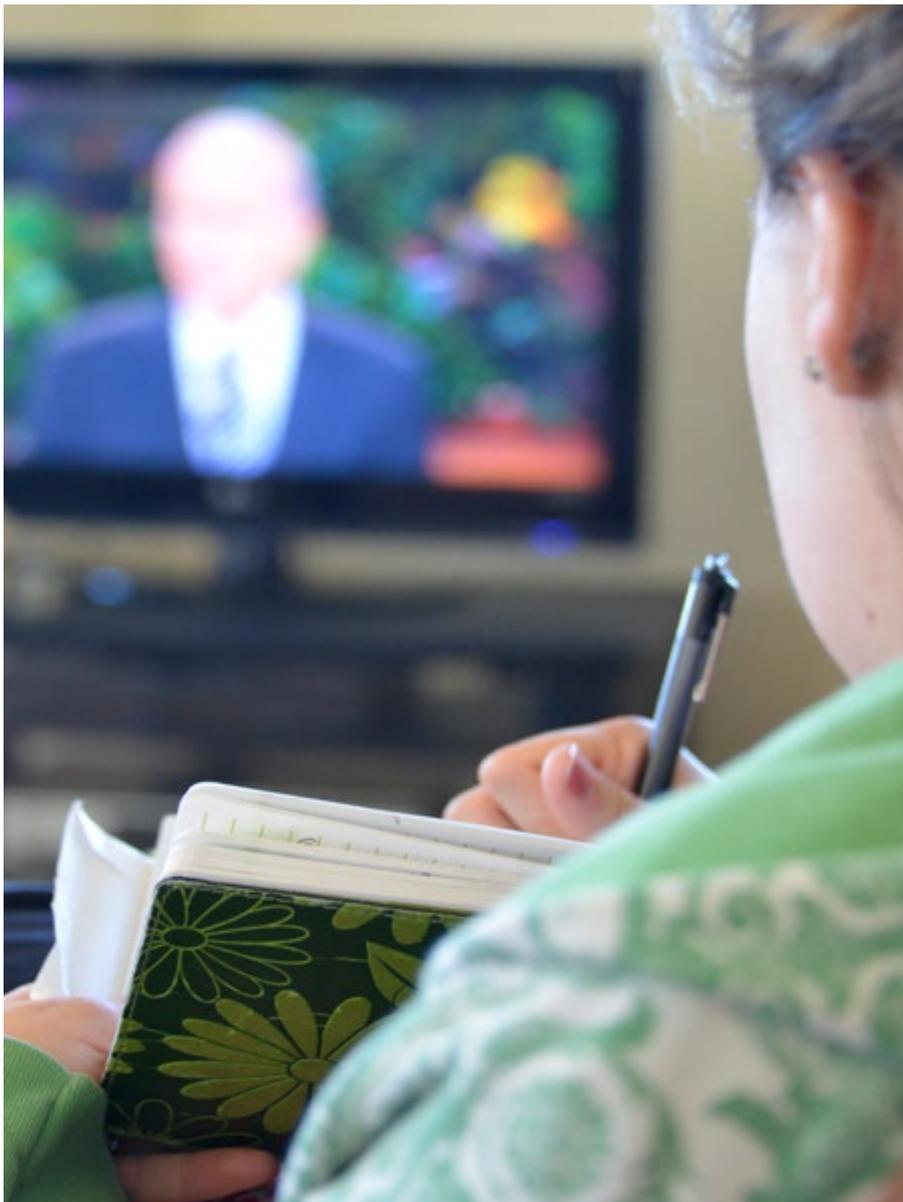
매년 두 차례 4월과 10월이면, 우리는 훌륭한 연차 대회에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얻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시는 연사들은 연단으로 걸어가는 그 긴장된 순간이 오기 오래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연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전달되는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연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주님께 간절히 애원했음을 나타냅니다.

만일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연사들이 준비하는 만큼 준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차 대회를 실로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기회로 여긴다면, 연차 대회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각자가 가진 의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연차 대회의 말씀과 음악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응답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실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간절하지만 심오한 이 노랫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 그분의 목적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살도록”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진지한 마음으로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분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연차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여러 질문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과 함께 다음 주제에 관해 토론해 본다. 연차 대회에서 그러한 응답을 얻으려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진리의 영을 구하”도록 독려한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또, 연차 대회를 준비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할 때, 교리와 성약 21편 6절에 언급된 것 외에 또 어떤 축복이 오게 되는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에게 이번 연차 대회에서 영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일지에 적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약속하건대,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축복이 [클]” 것입니다.⁵

인류의 역사에서 늘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할 때 부지런히 진리의 영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고,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⁶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흩어버리고 [우리의]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을 간증합니다.⁷ ■

주

1. 창세기 1:28 참조.
2. 아모스 3:7.
3. 교리와 성약 21:5.
4. 교리와 성약 1:38.
5.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어린이 노래책, 2~3쪽.
6. 교리와 성약 50:21~22 참조.
7. 교리와 성약 21:6.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하기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 처음으로 하신 일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귀중한 정보와 지침을 주신 일이었다고 설명한다. 4월과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권고를 줄 때,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은 연차 대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가? 특정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구하던

답을 얻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경험과 더불어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일지에 기록할 수 있다. 그런 뒤, 현재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개인 경전 공부 시간에 그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다가오는 연차 대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준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연차 대회 기간에 응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한다. 주님의 종에게 귀 기울이며,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속삭임에 집중해 본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변화해야겠다고 느꼈는가? 그것은 영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므로, 그러한 속삭임을 기록해 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 그분의 종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힘쓸 때, 우리는 축복받고 교화될 것이다.

어린이

연차 대회를 준비하자!

이 카드로 연차 대회를 준비해 보세요. 연차 대회가 열리는 동안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배운 점을 적어 보세요.

• 여러분의 질문을 적어 보세요.

내가 궁금한 점은 ...

•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

• 연차 대회를 들어 보세요.

내가 배운 점은 ...





신앙, 가족, 구제

자매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방문 교육 대상 자매들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 관한 더 많은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한 자매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떠올리며, “몹시 암담하던 날”이면 방문 교사들이 전화를 하거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그녀에게 격려가 필요한 순간을 아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들이 방문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들 나름대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전에는 타인을 위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온다. 그중 가장 극적인 예는 엘마 이세의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이다. 천사는 엘마 이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네게 관하여 ...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느니라]. 이리므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모사이야서 27:14)

서로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기꺼이 허락하고자 하지만,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만 하는 축복들을 받기 위한 것이다.”¹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자매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진지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 모두를 합친 우리의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² 방문 대상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후기 성도 여성으로서 강화될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방법을 구하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모두 행해야 할 것입니다.”³

주

1. 경전 안내서, “기도”.
2. 줄리 비 벡, “후기 성도 여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0쪽.
3. 헨리 비 아이어링, “신권과 개인 기도”,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86쪽.



생각해 볼 점

최근에 방문 교육 대상 자매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영감이나 생각이 떠올랐는가?

보살핌

방문 교육 기사 페이지는 매일 구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서로를 더 효과적으로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원리를 주로 다룰 것이다. 기도하고 영감을 구한다면, 각 자매에게 필요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어떻게 도울지 알게 될 것이다.

방문 교사는 하나님의 대표자

앨리스 시 스미스

새롭게 연재되는 본 기사는 *연단에서: 후기 성도 여성들의 설교 185년(2017)*에서 발췌한 헌신적인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전한 말씀을 조명하게 된다. 발췌한 내용은 churchhistorianspress.org/at-the-pulpit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의 메마른 언덕을 오르거나 유대의 흙길을 걸으셨을 때 모든 종류의 빈곤과 질병, 고난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과 뉘우치지 않는 죄인을 보셨으며, 고통에 허덕이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경험과 깊은 이해력에서 우리나라 연민 어린 간청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183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교리와 성약 20:17] 그러므로 1843년 7월 28일에 열여섯 명의 여성이 “궁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도록” 지명받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¹ 수백만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 부름받은 열여섯 명!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43년에 열여섯 명이었던 방문 교사는 [1969년] 현재 십만 명을 훌쩍 넘었고, 앞으로 그 숫자는 이십만, 이백만 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훌륭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 해 동안 상호부조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 저는 친구에게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 잠시 조용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그냥 방문 교사야.” 그냥 방문 교사라니요! 그 친구와 헤어진 뒤, 만일 구주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대표자가 되기를 바라노라. 나는 [네가 방문 교육하는] 여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에 늘 마음을 쓰고 있다고 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네가 나의 조력자가 되어 이 자매들을 돌보고, 모두가 내 왕국에서 평안하도록 그들을 보살피기를 바라노라.” 만일 제 친구가 구주의 이 말씀을 들은 뒤에 저를 만났다면, 다른 답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그분의 신권을 통해, 마치 당신이 그녀의 면전에 서신 듯이 확실하게 그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문 교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냥 방문 교사”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방문 교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집니다. 그와 더불어, 방문 교사는 방문을 통해 누군가 그들을 염려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염려하고 계심을 모든 자매에게



스미스 자매에 관하여

앨리스 콜튼

스미스(1913~2006)

자매는 1934년에 컬럼비아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녀는 남편 휘트니 스미스와 함께 1946년에 미국 유타주 로건으로 이주하여 유타 주립 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교수가 되었다. 스미스 자매는 1970년대 중반까지 조교수로 일하다가 상호부조회 본부 위원회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임했다. 그녀는 1964년에 상호부조회 본부 위원회에 부름받고 14년간 봉사했다. 스미스 자매는 본부 위원회에 국제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스미스 부부는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최초의 후기 성도 선교부를 세우도록 부름받고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생활했다.

앨리스 스미스 자매는 1969년 10월에 열린 상호부조회 연차 회의의 역원 모임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구두점 및 대문자는 수정하였다.

알립니다.

... 방문 교사는 월말에 황급히 찾아와, “제가 좀 바빠서요, 메시지는 읽으셨죠?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 그다지 필요한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말이에요. 별일은 없으시죠? 다음 주 상호부조회에서 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방문 교사는 자신이 방문 교육을 하는 자매와 그녀의 가정을 축복할 사랑을 남기고 방문을 마쳐야 합니다. ...

매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방문 교사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 방문 교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병들게 하는 외로움과 대도시의 매정함을 몰아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들, 남편과 부모를 잃은 이들을 돌보고,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살필 것입니다. 그들은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매를 돌아볼 것입니다. ... 그들은 사람들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죄지는 사람을 돕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매에게 복음에 깃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하나님께서 방문 교사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일할 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집니다.

... 언제나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주

1. Former Relief Society Handbook, p. 29. Handbook of the Relief Societ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31), 29 참조.



스미스 자매의 사진. 스미스 가족 제공. 액자 이미지: GETTY IMAGES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

네티 에이치 프랜시스

자매들은 자신이 놓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호부조회에서 서로를 돌보고, 돕고, 사랑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가 족과 함께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살 때 나는 한동안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다. 와드의 선한 자매님들과 훌륭한 유대 관계를 맺으며 지내던 시절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모임을 계획하고, 상호부조회를 이끌며, 와드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좋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자매님들의 집을 방문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지치거나 아프거나 경황이 없는 어머니들을 보살폈다. 나는 아이 여섯을 둔 젊은 어머니로서가 아닌 다른 역할에서도 성취감을 맛보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일로 그런 내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남편이 승진해서 다른 주로 가게 된 것이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우리는 이삿짐을 꾸렸다. 우리 가족은 헛살 가득한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춤디추운 와이오밍주 캐스퍼에서 작은 집을 빌려

살게 되었다. 이사하던 그 주에 나는 내가 임신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쌍둥이었다!

새 집에 도착한 날 밤, 나는 몸져눕고 말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침대에 누운 채로 남편이 아이들을 챙기며 차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지켜 보아야만 했다. 그렇게 난생처음 겪는 혹독한 육체적 시련이 시작되었다.

그 후 닷달 동안 나는 거의 음식을 넘기지 못했고, 겨우겨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았다. 음식을 만드는 일도 어쩌다 한 번씩만 가능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동안 나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고 네 아이를 전학시켰다. 우리가 빌린 집은 워낙 비좁았고, 몇 주 동안 우리는 짐도 풀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문 앞에서 배웅한 뒤 온종일 소파에 누워 지냈다. 걸음마를 시작한 두 아이는 그런 내 곁에서 놀았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등교한 뒤 초인종이 울렸다. 한 아이가 가서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새로 나가고 있던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단 한 분이 물건을 든 바구니를 손에 든 채 딸과 함께 서 계셨다. 와드의 새로운 회원인 나를 환영해 주려고 오신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창피하기만 했다.

나는 그 시간까지도 잠옷 차림으로 속을 게워낼 때 쓰는 통을 옆에 둔 채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 아이들은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채 아직 풀지 못한 이삿짐이 쌓여 있는 어수선했던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이 훌륭한 자매님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식탁 한 귀퉁이에 바구니를



서로를 위해 결에 머무십시오

“자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들은 서로 돌보고
살피고 위로하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의 결에 머뭍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애: 우리에게 서로가
얼마나 필요할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9쪽.

되었다.

몇 달 뒤 우리는 불어나는 식구들이
함께할 만한 널찍한 집을 매입했다.
어여쁜 두 아기가 태어나고 힘겹던 임신
기간도 끝이 났다. 그 친절한 상호부조회
자매님은 나와 가까운 친구가 되어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과 모범으로 나를
강화하고 북돋워 주신다. 나는 자매님이
처음 찾아오셨던 그 힘겹던 아침을 자주
떠올리며, 그분이 자신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자”라는 사실을
간증한다.(모사이야서 4:19 참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언제라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을
위해 우리에게 봉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자매들은 각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상호부조회를 통해
서로 돌보고, 돕고, 사랑함으로써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알고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는 그 어지러운 거실
바닥에 앉아 나와 우리 가족에 관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자매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겸손해졌다.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이 자매님처럼 나도 사람들을
방문하고 돕는 역할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몸으로 그 지지부진한
집에 누워 있었다. 마음이 외로웠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으며, 너무도
벽간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었다.
나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매 중 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종들이 베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즉각적이고도 훌륭하게
일깨워 주셨다.

자매님이 떠나신 뒤 식탁에 놓인
바구니를 보자 안심이 되고 마음이
밝아졌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나는
바구니에 든 선물들을 요긴하게
사용했다. 나에게 그토록 버거웠던 그
몇 달 동안 자매님은 계속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우리를 지원해 주셨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우정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전할 수 있는
희망과 도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7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과거와 향후 리아호나의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지도자가 최근에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해 본다.



교리 살펴보기

신권의 맹세와 성약

“**안** 식일과 성전은 각각 성스러운 시간과 성스러운 장소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고 기억하기 위해 특별히 성별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두 가지 신성한 도움의 근원은 그 주된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즉, 안식일과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성신, 그리고 구주의 회복된 복음의 의식 및 성약과 관련된 약속에 우리가 강력하게, 그리고 거듭하여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가정은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궁극적인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92~93쪽.



우리의 신성한 가치

“영[은] 우리가 지닌 신성한 가치를 우리 개개인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

여기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와 합당성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

반면, 합당성은 순종을 통해 얻어집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합당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주님을 닮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

구주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약점, 의심, 나쁜 습관에 쏟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동회 회장,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4, 15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듣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한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고귀한 집안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 부모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창조될 때 받아서 기나긴 전세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발전시킨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광활한 우주 전역에 별들을 흩뿌리셨으며, 행성을 두시어 정확한 궤도 안에 움직이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선량한 손.
 사랑이 가득한 손.
 보살피는 손입니다.

여러분에 관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이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비하자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분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길을 잃고, 버려지고, 잊혔다는 기분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세 자매”,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7쪽.



자매 여러분, 빛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은 여러분을 당신의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남성과 여성의 승영과 영생입니다.

자매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분되고 남다르게 사는 것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시련이 닥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우정이 필요한 선하고 고귀한 이들을 이끌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빛을 밝히시겠습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우리 중에 계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쉐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너희 빛을 밝히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9쪽.

빈칸 채우기

이 연사들이 전한 말씀의 전문은 2017년 11월호 리아호나 또는 conference.lds.org에서 읽어 볼 수 있다.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_____면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닐 에프 메리엇,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간극을 매우십시오”
2. “많은 이들이 … 멋진 _____의 여정을 밟[습니다.] …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 나는 구주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밟고 있는가?” —엠 러셀 벨라드, “여정은 계속됩니다”
3. “물문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물문경은 겸이며 방패입니다. 물문경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싸우도록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며 진리의 주된 _____ 역할을 합니다.” —태드 알 콜리스터,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 물문경”

우리 희망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계시는 본향으로 데려가시고자 영원한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껏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길의 단계 단계마다 계속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태어나기 이전의 삶

우리가 천세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영의 자녀가 당신과 같이 되도록 도우시고자 계획을 마련하시어 자녀들에게 보여 주셨다. 그 계획에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도록 다리 역할을 해 줄 구주가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겠다고 하셨다.(모사이야서 4:1~2 참조)

창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다.(골로새서 1:15~16; 제3니파이 9:15 참조) “끝없이 광활하게 뻗은 영원이, 무한한 시공에 펼쳐진 찬란한 아름다움과 신비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여러분은 주님께 중요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20쪽)

지상 생활

지상에 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구주께서는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실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고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겪으”셨다.(모사이야서 3:7; 또한 모사이야서 4:2; 엘마서 42:14~15 참조)



내세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영과 육이 분리된 채 영의 세계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극복했으며, 그 덕분에 우리는 충실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족 및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 그리고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되어(앨마서 11:43) 영원히 살 것이다.(고린도전서 15:22; 니파이후서 9:4~13 참조)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해 오셨던 그분께서는 완전하고도 자비롭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곧 얼마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니파이후서 9:15; 모사이야서 4:30; 교리와 성약 45:3~5 참조)



영생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침례와 성전 의식 등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고 계명을 지키며 충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릴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니파이후서 2:8; 또한 모사이야서 15:23 참조)

일출

던 젠슨

이생에서 끝이란 없으며, 우리는 이생이 끝난 후에도 커다란 아름다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막고 추운 겨울 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자잘한 일들을 하면서 목장의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일어난 일들로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한 사건이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을 슬픔으로 휩쓸고 지나갔다. 나와 고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와 그의 어린 아들과 십 대 딸, 그리고 딸의 세 친구가 참혹한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사고를 당한 여자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이기도 했다. 그 비극으로 우리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유가족들과 더불어 일주일 내내 슬픔에 잠겨 지냈다. 지난주에만 세 번의 장례식이 있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내 친구와 그 집의 두 아이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두고 몹시 괴로워했다.

먼저, 내가 정말 마음 아프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인생에서 겪게 될 그 많은 경험들을 미처 해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였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부모가 되는 일을 경험할 기회를, 필멸의 삶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기쁨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문제는, 마을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 주고 싶어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는 데 있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슬픔을 달래 줄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한참 일을 하는데, 사고로 죽은 친구의 장인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그분도 나처럼 목장을 운영하며 실 틈 없이 일을 하는 분인데, 오늘 당장 송아지 한 마리를 사고 싶다고 오신 것이었다. 거래를 마친 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분과 그분 가족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분의 가족을 위해 뭐라도 더 해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말씀드렸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분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었으면서도 침착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계셨다. 그 모습이 내게는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문득, 나는 두 가지 문제 중 하나의 답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참된 위안과 평화는 성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은 채 슬픔에 빠진 벗들을 어떻게 위로할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이 가족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계셨다. 나는 그들이 물론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있음을 알았다.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라].”

오 너희, 마음이 청결한 모든 자여,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이는 만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임이니라.”(야곱서 3:1~2)

그분을 배웅한 후 헛간에서 나와 보니, 서편 하늘에서 보름달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나는 돌아서서 동쪽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온 하늘이 색색으로 물들어 생기가 가득했다. 어여쁘게 지는 달을 뒤로하고, 숨이 멎도록 아름답게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대조되는 이 풍광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서 필멸의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다 해도, 충실하게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가 맞게 될 아름다움과 행복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목숨을 잃은 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담대한 삶을 살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훌륭한

경험과 기쁨을 누릴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날 교회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유가족을 응원하는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날부터 한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평화를 느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 자주 안아 주며 소중히 여겼고, 길지 않은 지상 생활 동안 가족과 친구에게 더 자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계획은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생에서 끝이란 없으며, 우리는 이생이 끝난 후에도 커다란 아름다움과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산다.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악이 선으로, 선이 악으로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사탄이 왜곡하고 훼손하는 방법.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대적의 시도에서 가장 교활한 면 중 하나는 악한 영향력이나 악마는 없다는 그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니파이후서 28:22 참조) 그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재정의하려 합니다.(니파이후서 15:20 참조)

이런 것을 때로 인식 체계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관한 일반적인 사고나 행동 방식을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여 사물을 실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는 그의 고전적인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고참 악마의 관점에서 썼습니다. 루이스는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아이러니와 풍자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²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몇 달 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광고 전문가와 매우 흥미로운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의 영향력과 나쁜 선택이 낳는 결과를 토론했습니다.

그는 루시퍼와 광고 대행사 간의 회의를 소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대적은 자신이 처한 딜레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반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거부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기쁨과 행복에 관한 것인 반면, 자신의 계획은 슬픔과 비참함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시퍼가 광고 대행사 간부에게 설명한 문제는 어떻게 추종자들을 유인하느냐였습니다.

루시퍼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식 체계를 바꾸거나 가치를 전도하는 것뿐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슬픔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혜의 말씀은 그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자는 “건강[을] 얻을
것이요 ...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도
찾으리니”라는 약속과 더불어 건전한
건강 습관을 고취합니다.**

묘사하고, 루시퍼의 계획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상 회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진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하는 적들은 그 계획에 담긴 교리와 원리를 훼손하려 할 뿐 아니라 그 계획에서 오는 축복까지도 왜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즐거운 것을 비참하게 보이도록 공을 들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왜곡하고 훼손하려 하는 사탄의 몇몇 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저는 평생 여러 친구가 술 때문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때로는 삶을 파멸시키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주 문화는 교회의 교리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사안입니다. 후기 성도는 이 문제의 결과에 관해 사회를 계도하는 일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의 ... 악과 의도” 때문에 주어진 지혜의 말씀에는 건강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 가운데서 약한 자와 가장 약한 자의 능력으로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주나 독한 음료[알코올은] ... 좋지 아니”한 것 등의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와 뜨거운 음료(홍차와 녹차, 커피)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교리와 성약 89:4, 3, 5, 8~9)

아울러 이 계시는 건전한 건강 습관을 권장하며, 그에 따르는 약속을 드러냅니다.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건강과 ...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를] 찾을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교리와 성약 89:18~19)³

대적이 담배와 술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그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늘날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상의 광고 대행사조차 흡연이 유익하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1833년에 지혜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1921년,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은 지혜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지키도록 성도들에게 촉구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⁴ 그 당시 영화에서 보여 준 상술과 흡연에 대한 미화 덕분에 흡연은 멋스럽고, 세련되며, 재미있는 일로 비쳐졌습니다. 그 후 43년이 지난 1964년에 이르러서야, 미합중국 의사 협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흡연은 미국에서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해야 할 만큼 건강에 매우 유해하다.”⁵

오늘날 흡연과 관련된 통계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장 질환과 뇌졸중, 폐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흡연은 폐암 발병률을 25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⁶

그리하여 대적이 멋스럽고, 세련되고 재미있다고 묘사했던 담배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에게 불행과 때 이른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술이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1940년대에 시작된 연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남성 268명을 전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관찰했습니다. 나중에는 여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연구의 목표는 성공과 행복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인의 행복은 어린 시절 가족의 행복, 특히 부모의 애정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⁷ 둘째, 평생의 행복에 이르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중요성입니다.⁸ 셋째, 결혼 및 평생의 성공과 행복에 미치는 음주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미국 가정 중 3분의 1이 알코올 남용의 영향을 받으며, 입원 환자의 4분의 1이 알코올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 남용은 사망과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성취도를 떨어뜨리는 데에도 주된 역할을 합니다.⁹

미연방 보건 자료에 근거한 최근의 워싱턴포스트지 1면 기사에서 “미국 여성들은 자신의 어머니 세대나 할머니 세대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술을 마시며 음주로 사망하는

숫자도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현재의 과학자들과 떠오르는 과학자들은 기존의 적당한 음주는 유익하다는 추정을 지지하지 않으며 알코올은 얼마를 소비하든 암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¹⁰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는 알코올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성폭행, 그리고 특히 폭음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포함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이 젊은 두뇌에 끔찍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입니다.¹¹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주로 언급하며, 음주 운전 사고, 알코올 장애에서 비롯된 신체 폭행 및 성폭행을 변명하려는 남성, 임신 중인 여성의 알코올 사용이 태아 두뇌에 끼치는 영향과 같은, 알코올 사용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¹²

흡연, 알코올 남용 및 아편류의 유행이 사회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것처럼¹³, 이제 우리는 악의 세력이 기본 전환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선택

가족과 관련된 선택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가족의 역할이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¹⁴

이 계획과 상충하며 결혼과 가족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대안을 긍정적인 것으로 알리려는 노력은 또 다른 인식 체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꽤 일반적인 일입니다.

- 결혼과 가정보다 교육과 경력을 우선시하는 남녀의 선택.
-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적은 수의 자녀를 두며¹⁵ 형편이 마땅치 않다고 임신 중절을 하는 선택.
- 신성한 결혼 대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선택.

사탄은 여성들을 목표로 하여 어머니가 되는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역이라고 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일은 하찮으며, 정절은 “케케묵은 것”이라는 말을 꾸며 냈습니다. 성스러운 결혼 제도를 대체하는 부도덕한 행위의 한 예로 외설물이 낳는 소외와 상품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적이 추구하는 일, 즉 진리와 의의 길에서 돌아서는 끔찍한 일을 강조합니다.

부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면서도,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상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적절한 선택을 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46%는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출산율은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율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대다수는 이 수준 이하입니다. 이탈리아와 일본의 경우는 출산율이 약 1.3명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¹⁶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를 “인구 통계학의 겨울”로 묘사했습니다.¹⁷ 세상을 떠나는 세대를 대체할 만한

자녀가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한 가지 현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예루살렘에 있는 세계 홀로코스트 추모 센터의 일부인 어린이 기념관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과 두 분의 미국계 유대인 지도자들과 함께 현화를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기간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어린이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¹⁸

기념관을 둘러보는 동안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평온을 되찾으려고 기념관 밖에 서 있던 저는, 그 공포의 현장들을 떠올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만 해도 제2차 세계 대전 중 유대인 학살로 사망한 유대인 어린이의 수만큼 많은 낙태가 2년마다 자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¹⁹

유대인 어린이들은 유대인이란 이유로 살해되었습니다. 전 역사를 통틀어 봐도 이 같은 유례가 없기는 하지만, 제가 유독 깊은 슬픔을 느낀 것은 아이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에서 성스러운 부분입니다.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낙태 시술에 너무 무감각해지고 주눅이 든 나머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을 마음 저편으로 밀어 버리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분명 여러 차원에서 자녀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이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질책해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배(사람)가 향해 기간(보낸 시간)에 겪었던 폭풍우(역경)를 알지 못하면서 배, 곧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²⁰ 덧붙여 말하자면, 이 개탄스러운 행위에 관여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구주에 대한 간증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신앙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이 문제는 엄청난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방금 거론한 인구 통계학의겨울과 결합하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오점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최상의 행복은 일차적인 요소, 즉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상당히 좌우됩니다. … 교회는 가족을 크게 제한하는 … 조치를 … 승인하거나 용인할 수 없습니다.”²¹

자녀의 수와 터울에 관해서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²² 그러한 결정을 외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일부 충실한 성도는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결혼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되는 낙태를 지지해 왔으며, 끔찍한 인식 체계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자녀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과 비참함을 나타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이므로 자녀의 중요성에 관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가족에 대한 공격은 결국 슬픔과 불행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가족을 통해 확립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며, 그들 각자의 역할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줍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과 영광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가족을 통해 확립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며, 그들 각자의 역할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상충하는 선택의 결과에 관해 가족 선언문보다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라는 명백한 선언이 나옵니다.²⁴

또 이 선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선택에 따른 최종 결과 및 영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에는 하나같이 어려움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생과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그에 대한 보상은 숨 막히도록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보상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땅에서 번성함

물론경 곳곳에 나오는 귀에 익은 성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대 네가 이

제 평생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오늘날보다 더 강하게 표출된 적도 없었습니다. 경전에 예언된 바와 같이, 루시퍼는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니라.]”(예컨대, 엘마서 36:30 참조) 순종을 통해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번성하는 첫째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의 신성한 가르침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것을 현세적인 번영의 가장 좋은 척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루시퍼의 인식 체계 전환은 많은 부를 추구하고 크게 눈에 띄는 사치품을 더 많이 획득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나 유명인사의 생활 양식을 따르는 일에 혈안이 된 듯이 보입니다. 충실한 회원에게는 과도한 부가 약속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일반적으로 부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후기 성도는 진실로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명한 재정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함.
- 지혜롭게 일하고, 계획하고, 지출함.
- 미래를 계획함.
-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부를 사용함.

루시퍼의 목적

루시퍼는 축복을 비참함으로 묘사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분의 교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제 평생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공격이 오늘날보다 더 강하게 표출된 적도 없었습니다. 경전에 예언된 바와 같이, 루시퍼는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대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탄의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적의 용병이 되어 ... 그토록 싼 가격에 매수당하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들은 약간의 지위, 약간의 돈, 약간의 칭찬, 약간의 일시적 명성에 눈이 멀어 온갖 덧없는 ‘보상’만을 제공할 뿐 영원한 보화는 전혀 갖지 못한 대적의 명에 기꺼이 응하려고 합니다.”²⁵

용병의 영향력을 보여 주는 예로,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시현과 물론경에 나오는 크고 넓은 건물보다 더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쇠막대를 붙들고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자,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었[습니다.]”(니파이전서 8:27~28)

따라서 그런 선택은 심판에서 쓰라리고, 역겨우며, 고약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심판을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만찬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으로 성결하게 되어 몸이 새로워[지며]”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4:32, 33; 또한 34~38절 참조)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취하는 영적 음식은 맛있고, 향기로우며, 감미롭고, 부드러운데, 영양이 풍부하고, 만족스러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할 때”(니파이후서 9:51), 우리는 곧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며,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므로”(니파이후서 9:41) 우리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

2017년 2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모임 말씀, “A Banquet of Consequences: The Cumulative Result of All Choices”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3), “paradigm shift,” merriam-webster.com.
2. C. 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1942) 참조.
3. Jed Woodworth, “The Word of Wisdom”,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eds 참조. (2016), 183-89; “The Word of Wisdom”, June 1, 2013, history.lds.org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 188~197쪽 참조.
5. *Smoking and Health: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Surgeon General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PHS publication no. 1103 (1964), 33; 또한 *The Health*

Consequences of Smoking—50 Years of Progres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 surgeongeneral.gov 참조.

6. “Health Effects of Cigarette Smoking”,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ay 15, 2017, cdc.gov 참조.
7. George E. Vaillant, *Tri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 (2012), 108-9 참조.
8. Alvin Powell, “Decoding Keys to a Healthy Life”, *Harvard Gazette*, Feb. 2, 2012, news.harvard.edu 참조.
9. Vaillant, *Triumphs of Experience*, 292 참조. 이에 비해,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에 대한 별도의 장기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James E. Enstrom and Lester Breslow, “Lifestyle and Reduced Mortality among Active California Mormons, 1980-2004”, *Preventive Medicine*, vol. 46, no. 2 [Feb. 2008], 133-36 참조.)
10. Kimberly Kindy and Dan Keating, “For Women, Heavy Drinking Has Been Normalized. That’s Dangerous.”, *Washington Post*, Dec. 23, 2016, washingtonpost.com; 결론 부분은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알코올 프로그램 담당자 Robert D. Brewer의 말을 인용.
11. “Fact Sheets—Underage Drinking”,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ct. 20, 2016, cdc.gov 참조.
12. Anne Schuchat, “The CDC’s Recommendations to Help Prevent F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s”, *American Family Physician*, vol. 95, no. 1 (Jan. 1, 2017), 6-7, aafp.org 참조.
13. “Inside a Killer Drug Epidemic: A Look at America’s Opioid Crisis”, *New York Times*, Jan. 6, 2017, nytimes.com 참조.
1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15. “1967년 이래로 자녀가 없는 25~34세의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Emily Schondelmyer, “No Kids in the House: A Historical Look at Adults Living without Children”, U.S. Census Bureau, Dec. 20, 2016, census.gov)
16. *World Fertility Patterns 2015*,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6, un.org; “Birth and Fertility of the Resident Population”, Istat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Nov. 28, 2016, istat.it; “The Future of World Religions: Population Growth Projections, 2010-2050, Buddhists”, Pew Research Center, Apr. 2, 2015, 6-12, 102-111, pewresearch.org; Adam Taylor, “It’s Official: Japan’s Population Is Dramatically Shrinking”, *Washington Post*, Feb. 26, 2016, washingtonpost.com; and Ana Swanson, “Japan’s Birth Rate Problem Is Way Worse Than Anyone Imagined”, *Washington Post*, Jan. 7, 2015, washingtonpost.com 참조.
17. *The New Economic Reality: Demographic Winter*, BYUtv, byutv.org 참조.
18. “Plight of Jewish Children.”, *Holocaust Encyclopedia*,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ushmm.org 참조.
19. Reproductive Health: Data and Statistics: “Abor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ay 10, 2017, cdc.gov 참조.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 숫자는 여전히 매우 높다.
20. 때로는 토머스 카알라일(1795~1881)의 말이라고도 한다.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2010), 17.3.1 참조. 이 부분에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및 태아의 심각한 결함과 관련 있는 제한적이고도 예외적인 낙태 조항이 나와 있다.
21.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328-29; 또한 영원한 결혼 학생 교재 (교회 교육 기구 교재, 2003), 15쪽, LDS.org 참조.
22. Gordon B. Hinckley, *Cornerstones of a Happy Home* (pamphlet, 1984), 6, LDS.org 참조.
2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3.3 참조.
2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2쪽.
25. Neal A. Maxwell, *Things As They Really Are* (1978), 42.

고대의 성막 둘러보기

현대의 성전에서 그러하듯이, 성막 안의 상징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성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권 의식과 거룩한 성약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획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시는 장소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출애굽기 29:46)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다. 성막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거하는 곳’이란 뜻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스러운 곳에 사신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불리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 정확히 진의 한가운데에 성막을 세웠다.(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생활에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상징함)¹

성막 안에 설치한 다음 물품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바를 숙고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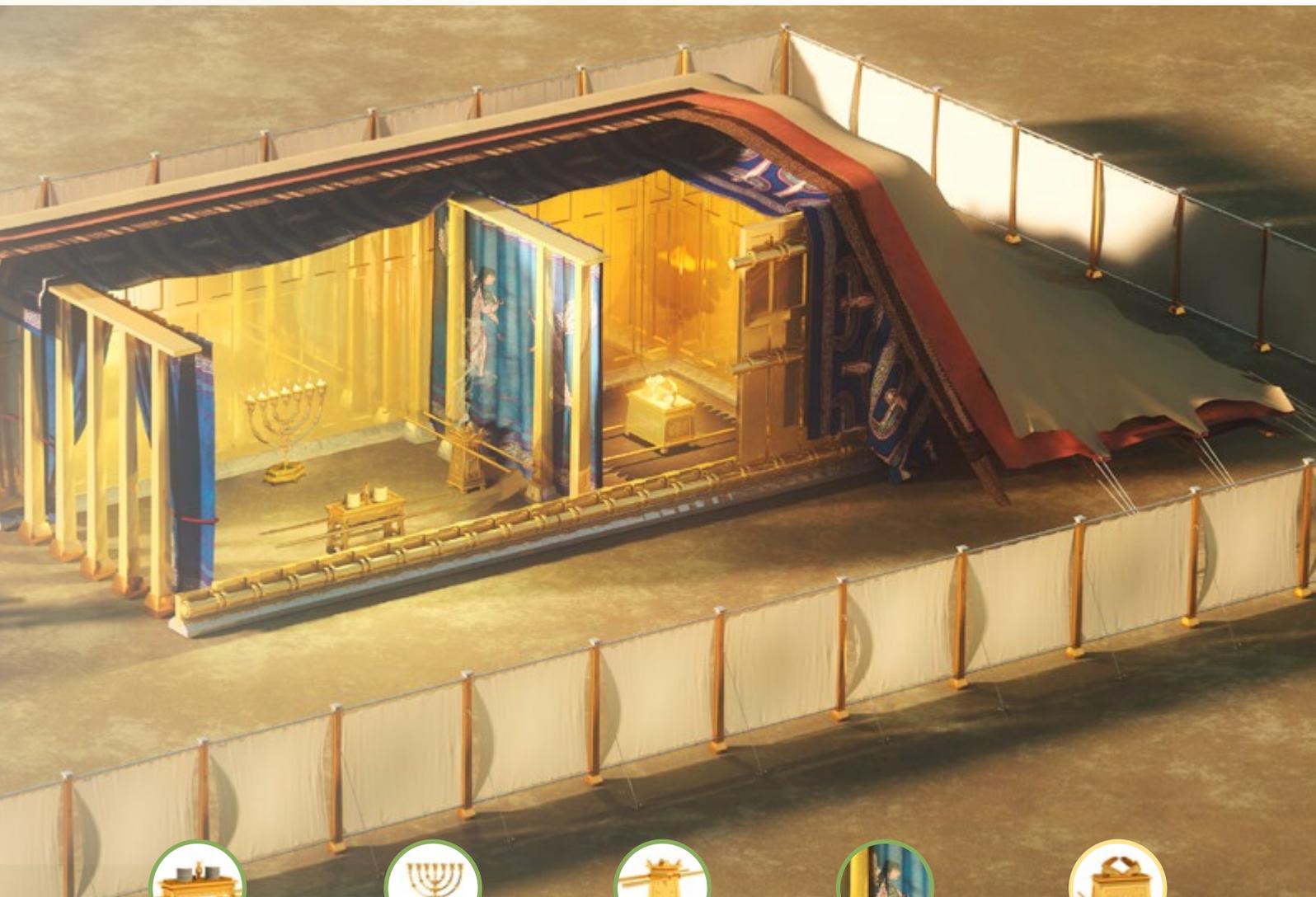
주
1.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1979), 394쪽.
2.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한(히브리서 8~10장)에서는 바울은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9:12)를 가르치기 위해 성막을 비유로 사용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10:19)



성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세 부분, 곧 바깥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된다.(출애굽기 25~30장 참조)

제단: 모세 율법에는 구주와 구주의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의 예표로서 이곳에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가 기술되어 있다.(엘마서 34:10 참조) 희생은 우리의 죄를 버리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를 상징하기도 한다.(제3니파이 9:19~20; 경전 안내서 “희생” 참조)

물두멍: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눈으로 만든 물두멍을 사용하여 손발을 씻었다.(출애굽기 30:19~21 참조) 이는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로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제3니파이 27:19~20 참조)



진설병: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무교병 열두 개를 진설병 위에 놓았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면전에 놓은 떡”을 의미한다.(출애굽기 25:30 참조)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 떡을 성소에서 먹었다.(레위기 24:5~9 참조)



등잔대: 순결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일곱 등잔불은 성소에 빛을 제공했다.(레위기 24:2~4 참조) 이는 영적인 빛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상기시킨다.



향단: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저녁 휘장 앞에 놓인 제단에 향을 태웠다.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하기도 한다.(요한계시록 5:8 참조)



휘장: 대제사장은 휘장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갔다. 휘장에는 그룹, 곧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았다.(출애굽기 26:31~33; 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휘장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려져 있으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가르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지성소: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성막에서 가장 성스러운 이곳에 들어갔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했다. 여기에는 언약궤를 안치했으며, 그 덮개는 속죄소라 불렸다. 주님은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 네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셨다.(출애굽기 25:22; 또한 출애굽기 29:43; 30:36 참조) ■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가족 행복의 샘

행복의 참된 근원인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한 개념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다양하고도 수많은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번 호 18쪽에서 그러한 공격 가운데 일부를 논하기도 했다.) 가족의 중요성과 신성 및 영원한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는 우리 중 일부도 그런 함정이나 위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혹, 자기중심적인 성취욕의 증가, 안락함이나 편리함을 따르는 태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될 때, 가족과 행복은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만사에 걱정거리가 없는 꾸러미”라는 특성으로 정의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적게 투자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방식으로 그것을 달성하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본다.

그러나 인생이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도 않고, 애초에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많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그 날이 오나니.”(교리와 성약 58:4)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주님은 가족이 발전하고 계속 굳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제시된 원리를 연구하고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개인적인 힘과 행복을 얻으려면 희생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¹

많은 이들에게 가족에 관한 의견과 가족의 목적은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는 점점 소위 “완벽한 영혼의 동반자”를 결혼에 대한 모형으로 삼는데, 이것은 자녀의 필요와 감정과는 동떨어진, 성인들의 요구와 기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적절한 교제 기간을 보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고 나서야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완벽한 짝을 찾아 헤매거나, 결혼의 혜택이 없는 동거로 관계를 시험해 보거나, 확고한 혼전 계약을 맺어 호화로운 생활 양식을 확보하고 나서야 마침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흔한 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는 이와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결혼 생활의 토대는 정절과 충실함이며,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하려는 의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혼에 반대하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을 연기하고 결혼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위한 기초로서 [전통적인] 결혼을 받아들일도록 촉구합니다. … 기본적으로 결혼은 가족을 전제로 합니다.”²

이것은 저와 제 아내 크리스티안이 젊은 시절에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조언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우리는 22세, 20세의 나이에

스위스 베른 성전의 제단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성약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사회 생활 경험도 전무한데다 아직 학교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순진한 열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는 시기를 미루지 않았으며, 교육을 받기 위해 서로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리라.]”(모사이야서 2:22)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당시, 크리스티안은 간호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학위를 마치는 것은 우리의 이상 중 하나였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리기로 한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첫 아이는 크리스티안이 공인 간호사 최종 시험에 합격하기 약 2주 전에 태어났습니다.

거의 40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우리가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세상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았으며, 그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부부의 관계는 굳건해졌습니다. 이 왕국은 영원무궁토록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행복이라는 이상을 위해 우리는 둘 다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성하게 부여된 부모 역할, 곧 아버지는 “다스리고” “마련하며”,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라는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³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줄리 비 벡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에 관한 아버지의 역할은 신권 의식을 감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권에 관한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적이고 명예롭고 상호 의존적인 책임입니다.”⁴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개인적인 힘과 행복을 얻으려면 희생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에서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 서로를 돕는 것은 두 사람이 항상 똑같은 일을 하거나, 모든 것을 같이 하거나, 똑같은 몫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각자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모습을 “해방”이라고 묘사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보완하며, 가족은 서로 단합하고 헌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글쎄, 우리는 처지가 달라요. 요즘 세상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외도 있어야죠.” 그 말도 맞지만, 저는 여러분께 신성한 이상에 대해 가르쳐 드리고, 이를 통해 인생의 여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예외를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관한 우리의 청사진은 크리스티안이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크리스티안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즉시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던 결혼 전 결정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버는 돈이 가족 수입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말하며, 저에게 지워질 추가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맡을 테니까, 식탁에 올릴 음식은 당신이 맡으세요.”

저는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오래전에 이미 상의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생활에 관한 우리의 이상에도 맞았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 그리고 매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 주기 위해 간호사라는 보수가 좋은 직업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육아, 교육, 훈육, 청소, 심지어 기저귀 갈기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도 저희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같이 했습니다. 일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그것이 늘 우리가 그리던 가정생활에 포함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과 저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이 정하신 시각에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 즉시 모든 것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때로 저희는 인내해야 했고, 때로는

더 노력해야 했으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었기에, 그것에서 우리는 항상 영감을 받았으며,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것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크리스티안과 제가 항상 그리던 것 중 한 가지는 언젠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면서, 그 전주곡으로 성전에 있는 해의 왕국실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아이들을 한 명씩 성전 의식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의로움의 원리를 가르친 후, 상징적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자녀 중 세 명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그들과 성전 제단까지 동행했으며, 앞으로도 성전 결혼은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서로에게, 그리고 자손에게서 얻는 기쁨보다 더 큰 행복과 만족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진보의 시작일 뿐이며,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한 이후로 저희는 가족에 관한 교리대로 생활하기 위해, 또 우리의 이상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행복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행복은 항상 점점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십시오

가족에 관한 교리를 공부하고 행복에 대한 청사진을 세운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크리스티안에게 구혼했다가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저는 다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의 청년 독신 성인으로 남는 보람찬 업적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특별한 영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마음에 이런 취지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릭, 결혼해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맺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가르침과 약속된 축복도 너에게 별 소용이 없을 거야.” 그것은 제가 21세의 젊은 나이에 받은 경종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상을 이루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목표는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마음의 소망과 비전을 반영한다. 목표와 계획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 목표 설정과 계획은 신앙의 행위이다.”⁵

성스러운 것을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일단 결혼 적령기가 되면, 그저 재미 삼아 데이트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약을 맺을 권리를 박탈할 행동을 함으로써 타고난 영원한 권리를 손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모든 데이트 상대를 영원한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대한다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합당성을 손상하고 자신의 이상을 균열시킬 부적절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은 절대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항상 영의 속삭임을 받을 자격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죽을 만큼 두려운 순간조차도 성신은 우리를 격려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결정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자신의 이상과 삶의 목표에 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집니다.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생과 영생은 “회개의 날을 미루”기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앨마서 13:27; 34:33)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과 같은 촉구에 응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옛적과 같이 시작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와, 그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몰몬서 9:27)

우리 중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족에 관한 이상적인 미래상을 개인적인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으로 행동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이상적인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성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마무리, 혹은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항상 올바른 길에 머물러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연계했습니다.(모로나이서 6: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약점이나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우리가 비틀거리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벌어진 틈을 메우시며 우리의 신앙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모든 사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9)

지침서 2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인생에서 영원한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충실한 회원은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⁶

저는 주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세기 2:18)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며, 주님의 궁극적인 바람은 당신의 모든 자녀가 “충만한 기쁨”(모세서 7:67)을 얻는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이상을 기억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어 살겠다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합당한 배우자[가 되고] 다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축복은 다음 생애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⁷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각자가 처한 삶의 상황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 기대치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리와 원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하고 참됩니다. 이러한 교리와 원리를 진지하게 숙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 줄 삶의 개인적인 이상을 이룩해 나갈 수 있음을 저는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

2014년 12월 2일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What Do You Envision in Life?”에서 발췌함.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Spencer W. Kimball, “Guidelines to Carry Forth the Work of God in Cleanliness,” *Ensign*, May 1974, 6.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4. 줄리 비 백, 연차 대회 훈련 중 했던 발언, 2009년 10월.
5.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46쪽.
6.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3.3.
7. *지침서 제2권*, 1.3.3.





제 2 장

그의 말을 들으라

다음은 교회의 역사를 네 권의 이야기로 풀어쓴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의 제2장이다. 이 책은 인쇄본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복음 자료실 앱의 Church History[교회사]와 saints.lds.org/kor에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몇 개의 장은 제1권이 14개 언어로 출간되는 올해 말까지 앞으로 발간될 리아호나에 연재될 예정이다. 이 장들은 복음 자료실 앱과 saints.lds.org/kor에서 47개의 언어로 볼 수 있다.

18 20년의 봄날 아침, 일찍 잠을 깬 조셉은 집을 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맑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조셉의 머리 위에 드리운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조셉은 혼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침 숲에 조용한 곳이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그곳에서 벌목을 한 뒤 나무 그루터기에 도끼를 꽂아 두고 왔었다.¹

조셉은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면서 그곳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소리 내어 기도할 시간을 간절히 바랐기에, 그는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신한 조셉은 서늘한 맨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속의 소망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가슴에 품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비와 용서, 지혜를 구하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²

바로 그때, 혀가 부어오르는 듯하여 굳어지더니 이내 조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해 보려 하자 누가 이쪽으로 다가오기라도 하는 듯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조셉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³

그리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엄습했다.

여전히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무거운 어둠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주변은 칠흑같이 컴컴해졌다. 의심과 함께 끔찍한 장면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조셉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공할 존재에게 자신이 파멸되어 버릴 것만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⁴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한 번 더 하나님을 불렀다. 혀를 움직일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이제는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았다.⁵

그 순간, 조셉의 머리 위로 빛기둥이 나타났다. 빛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온 숲을 태울 듯한 찬란한 빛이었다. 빛이 조셉 위에 머무르자, 그를 짓누르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조셉은 평안과 기쁨이 샘솟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가만히 올려다보니, 그 빛 속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렇게 눈부시고 장엄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바로 옆에 선 다른 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⁶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분의 얼굴도 눈부시게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구께서 조셉을 향해 말씀하셨다. “조셉, 네 죄는 사해졌느니라.”⁷

마음의 짐을 벗은 그는 다시 주님께 여쭙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⁸

구주께서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도 가서는 안 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주님은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셨다. “어느 교회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복음에서 벗어나 있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도다.” 신성한 진리는 이미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장차 조셉에게 당신의 충만한 복음을 드러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⁹

구주께서 말씀하실 때, 조셉은 한낮의 해보다도 밝은 빛에 둘러싸인 천사의 무리를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또 보라, 아버지가 내리신 영광의 옷을 입고 내가 속히 오리라.”¹⁰

조셉은 그 광채를 보며 숲이 남김없이 다 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숲의 나무들은 모세의 떨기나무가 그랬듯이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다.¹¹

빛은 서서히 사라져 갔고, 조셉은 기진맥진하여 땅에 누워 있었다. 빛기둥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며, 조셉을 괴롭히던 죄책감과 혼란스러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조셉은 가슴 가득 신성한 사랑을 느꼈다.¹²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진리와 용서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시현을 본 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일 만큼 지쳐 버린 조셉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숲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벽난로에 몸을 기대고 휴식을 취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느냐며 말을 건넸다.

조셉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¹³

며칠 뒤, 조셉은 한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숲에서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했다. 그 목사는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일대에서 활발하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에, 조셉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리라 기대했다.

처음에 목사는 시현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늘의 시현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⁴ 그러나 곧 그는 화가 나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런 이야기는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현과 계시는 이미 오래전에 그쳤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¹⁵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그는 곧 누구도 자신이 본 시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¹⁶ 그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 조셉은 겨우 열네 살짜리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평생 땅을 경작하고 온갖 굶은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갈 것이 분명한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몇몇 사람들은 그런 조셉을 상대로 조롱을 퍼부었다. 조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아이일 뿐인 자신에게 그토록 큰 냉소와 경멸이 쏟아지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묻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 괴롭히는 거죠? 나는 정말로 보았는데, 왜 다들 내게 그것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죠?”

조셉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평생 이 문제를 거듭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였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¹⁷



조셉은 자신이 시현을 보았음을 알았다. 조셉은 환한 빛에 싸여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시현을 이야기하면 이웃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된 조셉은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려 노력했다.¹⁸ 그리고 시간이 지나 뉴욕을 떠난 뒤에야 숲속에서 겪었던 성스러운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세상이 회개해야 한다는 구주의 경고를 기록했다. 유려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조셉은 자신의 말로 그 장엄한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조금 더 공개적으로 시현을 언급했다. 이번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내용들까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 그 기록에서 그는 참된 교회를 찾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들을 소개하셨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자신이 용서를 구했던 일보다는 구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전하신 진리의 메시지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 자세히 적었다.¹⁹

그렇게 그때의 경험을 기록할 때마다 조셉은 주님께서 자신의



스미스 가족이 살던 집 근처에 지금도 우거져 있는 이 숲에서, 조셉은 자신이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를 알고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음을 간증했다. 조셉은 어린 시절에, 구주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밝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기에 조셉은 하나님을 믿고 숲에서 받은 주님의 명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인내하며 더 많은 가르침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²⁰

인용된 문헌은 전부 saints.lds.org/ko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석에 나오는 주제는 saints.lds.org/kor에서 온라인 정보를 추가로 열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
3.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4. 조셉 스미스—역사 1:15;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5-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5. 조셉 스미스—역사 1:1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6.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8.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9. 조셉 스미스—역사 1:5-26;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Levi Richards, Journal, June 11, 1843;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JSP*, H1:494.
1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11. Pratt, *Interesting Account*, 5, *JSP*, H1:523.
12. 조셉 스미스—역사 1:20;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13. 조셉 스미스—역사 1: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14. Bushman, "Visionary World of Joseph Smith," 183-204 참조.
15. 조셉 스미스—역사 1:2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6 (draft 2); Neibaur, Journal, May 24, 1844, josephsmithpapers.org.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기독교회
16. Joseph Smith—History 1:22, 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6-18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17. 조셉 스미스—역사 1:21-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6-18 (draft 2).
18.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JSP*, H1:6 참조.
19. 조셉은 이 경험을 평생 네 차례에 걸쳐 직접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서술하게 했다. 첫 번째 기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3, *JSP*, H1:11-13. 조셉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글로 옮겼던 사람은 그 외에도 다섯 명이 더 있다. 이렇게 작성된 아홉 개의 기사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rimary Accounts of Joseph Smith's First Vision of Deit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각 기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한다.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topics.lds.org. 주제: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 기록
20. 조셉 스미스—역사 1: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8 (draft 2)





크리스티안이 할아버지의 일지를 발견했을 때만 해도 그는 그 일지가 그와 자신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코디 벨, 사진작가

크리스티안 칼손

노르웨이 부스케루

어머니는 낡은 사진이 담긴 상자 한 개를 나에게 주셨다.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놀라운 물건 중 하나는 외할아버지의 일지였다. 일지에는 짧고 간결한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휘발유, 바나나, 생선 가격 같은 간단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그 외에 또 제일 좋았던 것은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해 둔 부분이었다.

할아버지는 그의 말씀에서 당신이 교회를 알아보며 했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셨다.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에 관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스스로 겸손해져야 했다. 그분은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따라 행했다.

외할아버지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나의 가족은 할아버지를 만나 본 적도 없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은 그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 닿았다.

더 알아보기

liahona.lds.org에서 크리스티안의 신앙의 여정에 관해 더 알아본다.

신앙에 관한 기사를 더 찾아보려면 LDS.org의 미디어 자료실을 참고한다.

FamilySearch.org에서 가족의 추억과 사진을 보존하는 방법을 배운다.

조상을 찾으며 발견한 진리

나의 이탈리아계 조상에 대한 관심으로, 몇 년 전에 나는 계보 찾는 일을 시작했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조상들을 찾은 결과, 마침내 이탈리아 출신인 현조부(5대조 할아버지)의 출생 기록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조상을 찾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전에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던 많은 조상들을 찾아내었다. 그러면서 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잉그리드 자니나라는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우리는 어쩌면 친척 관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잉그리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고, 나에게 물문경도 한 권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곧바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루는 직장에서 에리카라는 젊은 여성이 내 손에 든 물문경을 보게 되었다. 그때 에리카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행복하고 들뜬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에리카는

현 조부의 기록을 찾은 일을 계기로 나는 조상을 찾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조상을 찾으면서, 나는 더 많은 것을 찾게 되었다.

나에게 책을 잘 읽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와 남동생이 교회에 갈 때 함께 갈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 왔다. 물문경을 받고 2주 후에 나는 처음으로 교회에 가 보았다.

그날 주일학교 공과 주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이었다. 무척 흥미로웠다.

나는 선교사를 만났고, 그날 오후에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가족 역사 관련 모임에 참석했다. 교회를 알아보는 동안 나는 우리 조상들이 함께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격려받는 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선교사들이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했을 때, 나는 잠시 가족 역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받고 가족 역사의 영원한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저 우연일 리가 없었다. 나는 침례를 받으라는 선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나는 지금도 가족 역사 사업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았기에 조상을 찾으려는 나의 노력이 이제 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 ■

유리 시케이라 자니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애나에게 내민 손길

몇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여섯 살 난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일이다. 내가 가르치는 반에 애나라는 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가족을 잘 알았는데, 부모님이 별거 중이어서 당시 애나는 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 들러서 애나와 아버지를 만났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오도록 애나를 초대했다. 애나는 관심이 있어 보였지만 교회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나는 몇 주 동안 일요일 아침마다 애나를 초등학교에 초대하기 위해 그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나는 애나를 초등학교에서 보면 정말 좋겠다는 음성 메시지를 항상 남겼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애나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왔다. 애나의 아버지는 애나가 제일 좋은 안식일 옷을 입고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까지 직접 딸을 데려다주었다. 애나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나는 애나를 환영하고 반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 주었다.

우리는 공과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색칠하기 활동으로 시간을 마쳤다. 아이들이 교실을 나갈 때, 애나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내 손에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그게 쓰레기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휴지통에 버리려는데, 그 종이를 열어 봐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그 종이는 애나가 내게 쓴 쪽지였다. 종이에선 여섯 살 아이의 필체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애나는 나를 사랑할 정도로 나에게 대해 잘 알지는 못했다. 나에게 애는 것이라고는 초등학교에 오라고 전화기에 남겼던 음성 메시지뿐이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에게 내민 그 작은 노력에 애나는 누군가가 자신을 아끼고 구주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애나는 가끔 초등학교에

애나는 내게 쪽지를 써 주었다. 종이에선 여섯 살 아이의 필체로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왔고, 애나의 아버지도 한 번씩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가족의 상황이 다시 바뀌면서, 그 이후로는 그들을 자주 볼 수 없었다.

나는 수년 동안 애나 생각을 해 왔다. 애나가 초등학교에서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 애나가 그때 배웠던 것을 얼마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애나가 주님의 사랑과 영에서 오는 위안과 한 교사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

마거릿 에스 리퍼스, 미국 유타주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잊으신 걸까?

모 든 곳을 다 찾아보았다. 군사 시설에 보내기로 되어 있는 크레인을 완성하는 데 꼭 있어야 할 부품을 찾으러 사무실에서 작업장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도 부품을 찾지 못했다. 계약 시한을 맞추려면 이를 후에는 선적을 해야 했다. 계약일을 맞추지 못하면 회사는 상당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이었다.

나는 회사 창고에 들어가 다시 한번 빠진 부품을 찾아보았다. 모든 상자를 다 찾아봤고 그 부품을 분명히 주문했었는지도 재차 확인했다. 지금 부품을 다시 주문한다 해도 어차피

마감일을 맞추기는 힘들었다. 난감했다. 집으로 향하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건성으로 간단히 기도를 드린 후 잠을 청했다. 뭔가 놓친 것은 없었는지 머릿속으로 그날 아침부터 했던 일들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그렇게 뒤적이며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평상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바닥에 놓아둔 베개를 내려다보았다.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하루종일 기도했지만 내

기도로 뭐가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신 걸까?

그렇다 해도 별다른 방도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시는지 여쭙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그 부품이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부디 저에게도 알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까지 말입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는데, 마지막으로 창고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창고에 있는 상자들을 전부 다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부품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창고에 들어가 전날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상자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커다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상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겹쳐진 상태였다. 나는 위에 있는 상자를 들어올렸다. 그 아래 상자에 부품이 들어 있었다!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무실로 돌아와 작업공들에게 부품을 찾은 것을 알렸다.

문득, 내가 부품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있다는 것과, 내가 그분께 중요하다는 사실까지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다. ■

에드윈 에프 스미스, 미국 유타주

꿈이 실현되다

나는 중국 홍콩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나는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한 후 나는 남편과 호주로 이주했다. 솜씨 좋은 정비공인

남편은 취업 비자를 받았고, 덕분에 우리는 호주에서 4년간 살게 되었다. 우리 부부가 둘 다 취업을 하자 비자는 4년 더 연장되었다.

그 기간에 우리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영어 수업을 돈 내고 들을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와드의 한 형제님과 자매님이 우리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셨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호주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 방법을 찾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다. 와드 회원들도 우리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 주었다.

하지만 희망은 없어 보였다. 우리는 짐을 싸고 홍콩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한 친구가 전화를 해서 우리의 비자 문제를 물었다. 우리가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아는 이민국 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그 직원을 만나러 갔다. 그를 만나고 금세 우리는 안도하게 되었다. 그는 시드니를 떠나 시골로 이사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자로 연장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도시로 이사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호주 특유의 무성한 신록에 둘러싸인 집을 발견했다. 새로운 집도, 와드도 정말 좋았다.

얼마 후에는 임시 비자도 나왔다. 남편과 나는 계속 기도했다. 6개월 동안 남편은 일요일마다 금식을 했다.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고 매주 성전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민국 직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는 시드니에 있는 사무소로 가서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들이 다시 돌려준 우리의 여권에는 영주권을 승인하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신앙이 있었고, 그 기도는 실제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자연에 둘러싸인 나라에 살고 싶어 했던 나의 꿈도 실현되었다. ■

발렌시아 형,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성전을 향한 여정

편집자 주: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부부가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기 위해 치른 희생을 보여 준다. 이 글이 독자 여러분에게 성전 결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에프레인 로드리게스

19 79년 10월에 일반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나는 나의 아내 마리아 온디나와 함께 대서양 연안에 있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태평양 연안에 있는 우리의 고향, 페루 아레키파를 출발했다. 우리는 남미 대륙에 처음으로

세워져 최근에 헌납된 성전에서 인봉을 받기 위해 아레키파에서부터 육로로 여행을 한 첫 번째 부부였다. 처음에는 열흘 안에 여행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위태로운 정치 상황 때문에 실제로는 한 달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선교 사업이 끝나면 합당한 여성에게 인봉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다는 사실이었다.

아레키파에서 훌리아카를 거쳐 푸노까지

우리는 아홉 시간 동안 밤길을 달려 페루 훌리아카에 도착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페루를 떠나려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출국 허가서를 받아야

돈도 거의 없고 여정도 험난했으나 아내와 나는 우리가 성전에서 인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했다.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서 관공서는 주말까지 문을 닫을 참이었으므로, 우리는 정오에 모든 기관이 문을



닫기 전에 일처리를 할 여유를 두려고 아침부터 뱅크오브더네이션(페루 재정경제부 소속 금융거래기관-유크인 이) 앞에 줄을 섰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우리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서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푸노에 있는 사무실까지 가서야겠군요.” 놀랍고도 당황스러웠다. 푸노는 거기서 45분이나 떨어져 있었다.

푸노에서 라파스를 거쳐 코차밤바로

간신히 택시를 잡아 푸노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미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현관문 쇠고리를 붙잡고서 힘껏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 한 남자가 무척 화가 난 얼굴로 문을 열더니 물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 이 낯선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몰몬입니다. 제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성전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시간 전에 업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직원들도 거의 퇴근했구요.”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걸 찾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저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는 나에게 문을 열어 주었다.

나는 로사라는 책임자를 만나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다. 로사는 정중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 서류들을 처리하려면 담당자가 세 명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들 퇴근한 것 같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세 사람은 모두 아직 퇴근 전이었고, 로사는 그들에게 남겨서 나를 도와주도록 협조를 구해 주었다.

첫 번째 직원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했다. 그는 “경제부에 가서 서류 여섯 가지를 사오셔야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무래도 월요일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다. “선생님, 저는 몰몬입니다.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성전에 가서 결혼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은 더 이상 바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는 서류를 모두 열어 보더니, 결국 필요한 서류를 찾아냈다. 다음 사무원은 신속하게 서류를 확인한 후, 우리의 여권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다음 창구에서 미화로 출국세를 납부하려 하자 출납 담당자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이 안내문 보이시죠?”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화는 받지 않음.”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싶었다. 더는 방도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받으세요.” 우리 뒤에서 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담당자는 돈을 받고 나에게 서류를 주었다. 드디어 출발이다!

볼리비아 라파스 시내로 들어설



무렵,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탄 버스로 돌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보니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돌맹이를 던지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을 막고 있었다. 우리 버스는 계속 시내 중심을 향해 쏘살같이 달렸다. 그날 밤, 볼리비아에서 혁명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호텔을 찾기 시작했다. 겨우 하나 찾은 호텔은 가격이 너무 비쌌다. 한 마음씨 좋은 호텔 직원에게 우리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우리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호텔 청소용품 창고에 묵게 해 주었다. 직원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주고 담요를 갖다 주었다. 덕분에 우리는 추위와 밤새 울려 댄 총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군인들이 탱크의 엄호를 받으며 혁명에 항거하는 사람들에게 소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연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하루에 세 번 출발하던 버스는 한 번만 운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좌석은 수일 전에 동이 났다. 나는 책임자를 만나 지금껏 모든 사람에게 했던 간청을 했다. “선생님, 저희는 몰몬이고 결혼하러 성전에 가야 합니다. 선생님이라면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책임자가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코차밤바입니다, 선생님.” 그는 서랍을 열더니 표 두 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표였다. “서두르세요.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우리의 짐가방이 깃털처럼 느껴졌다.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그날의 축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코차밤바에서 산타크루스까지

혁명으로 혼란이 더욱 극심해진 가운데 우리는 코차밤바에 도착했다. 시장은 천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친절한 페루인 덕분에 우리는 몸을 씻고 가방까지 맡겨 놓은 뒤 버스 터미널에 갈 수 있었다. 터미널에서도 늘 하던 대로

똑같이 간청하여 버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며칠 후에는 브라질 접경 지역인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흘을 지내며 아침마다 기차역에 가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답은 항상 아니요였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브라질행 기차가 곧 운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왔다.

가진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자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갈 거예요.” 아내의 말에 내 마음이 행복해졌다.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남은 여정에 필요한 여비를 더는 걱정하지 않았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셨다. 할머니는 아내 앞에 멈춰 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새벽, 오늘 출발하는 표 두 장 필요하지 않우?” 아내는 할머니의 손에서 표를 거의 낚아채다시피 했다. 돈을



지불하자 할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셨다. 몇 초 후에야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천사가 우리 곁에 머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타크루스에서 상파울루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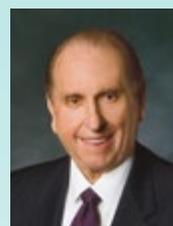
기차에서 알게 된 한 친구에게서 마지막으로 차편을 얻어 타고 마침내 상파울루 성전에 도착했을 때, 성전 숙소는 닫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우리는 성전 경내에 있는 벤치에서 앉아 잠시 쉬었다. 그때 성전 꼭대기에 모로나이 천사상이 보였다. 우리가 꿈꿔 왔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다. 어느덧 자정이었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피로에 지친 채로, 비에 젖은 채로 함께 울었다. 그러나 축축함이나 배고픔이나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주님의 집에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순종했고, 보상을 받았다.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그는 선교사 시절 나의 동반자였다. 마침 그도 바로 그날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아내와 숙소로 돌아오던 참이었다. 그는 우리 부부를 자기들 숙소에서 묵게 해 주었고, 다음 날 성전 회장님께서 우리 인봉을 집행해 주실 때 증인도 되어 주었다. 해의 왕국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내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동반자 친구가 빌려준 돈과 선교 회장님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닷새 만에 지체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단돈 20달러를 가지고 나는 영원한 동반자인 나의 아내 마리아 온디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어떤 희생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많은 장애가 있어도 그런 불편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순(1927~2018) 회장,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어머니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다

소니아 파디아-로메로

나는 열네 살 때 교회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침례를 받도록 허락을 해 주긴 하셨지만, 교회에 들어오거나 교회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는 두 분 다 관심이 없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내가 느꼈던 행복을 우리 가족이 알게 되기를 십 년이 넘도록 간절히 소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가족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 채 홀로 교회에 참석하며 엔다우먼트를 받고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다시 멕시코로 돌아온 후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 (부모님은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혼하셨다.) 멕시코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나는 일부러 엄마를 훈련원으로 초대하여 내가 가르치는 장로들과 자매들을 만나게 하기도 했다. 또,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을 은근슬쩍 (가끔은 대놓고)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엄마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엄마 주위에 선교사들이 있으면 엄마가 복음에 관하여 질문을 더 하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온갖 시도를 다해 보았지만, 모두 다 허사인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그 삼 년 동안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만나 보셨던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2008년에 나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해 말쯤,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이 대규모의 보수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나는 이 기회에 꼭 그곳에 가서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시도록 엄마를 설득했다. 나의 성화에 못 이겨 엄마는 차로 113km를 가야 하는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하기로 하셨다.

다음 통화에서, 엄마는 성전에서 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면서 성전에 다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엄마는 남은 일반 공개 기간 동안

**어머니께 교회에
관해 알려 드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해
보았다. 하지만 성전
일반 공개 때에야
어머니의 마음이
움직였다.**

성전에 몇 번이나 더 가셨다. 심지어 성전 재헌납* 전에 열린 문화 행사에도 참석하셨다.

그다음 통화에서, 엄마는 나에게 선교사를 초대하여 복음 공부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계기로 엄마는 교회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하며 부쩍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다. 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라

왔던 일인가. 성탄절 방학을 맞아 집에 갔을 때 나는 엄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자상하고 인정이 많으셨지만, 엄마의 태도에는 깊은 변화가 묻어났다. 그것은 엄마의 개성이었다.

나는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놀라워하며 학교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에 엄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니아, 언제쯤 멕시코에 다시 올 수 있는지 궁금하구나. 엄마가 침례를 받거든.”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다! 나는 2월에 엄마의 침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교회에 참석하고, 부름을 받아들여 봉사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엄마가 복음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엄마의 기도를 듣는 것도 강렬한 경험이었다. 특히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가 나와 나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 세상에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보다 더 특별한 것은 없다.

왜 진작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아마 엄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복음의 씨앗이 먼저 심어졌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성전을 통해 내가 이전에 했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방법과 시기에 엄마의 마음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 주님께서 엄마의 삶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았던 때가 떠올랐다. 앞으로 주님께서 엄마 외의 나의 다른 가족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무척 크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주님께 내 삶의 인도를 맡길 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내 뜻을 고집할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더 험난하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마련해 두신 위대한 일들을 보며 그 일에 놀라고 싶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은 2008년 11월 16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재헌납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수 작업을 거쳐 2015년 9월 15일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다시 재헌납했다.



거룩한 성전의 축복

“거룩한 성전의 축복이 여러분을 포함한 각 선교사의 경험에서 시작과 끝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우리로 들어온 모든 사람이 집합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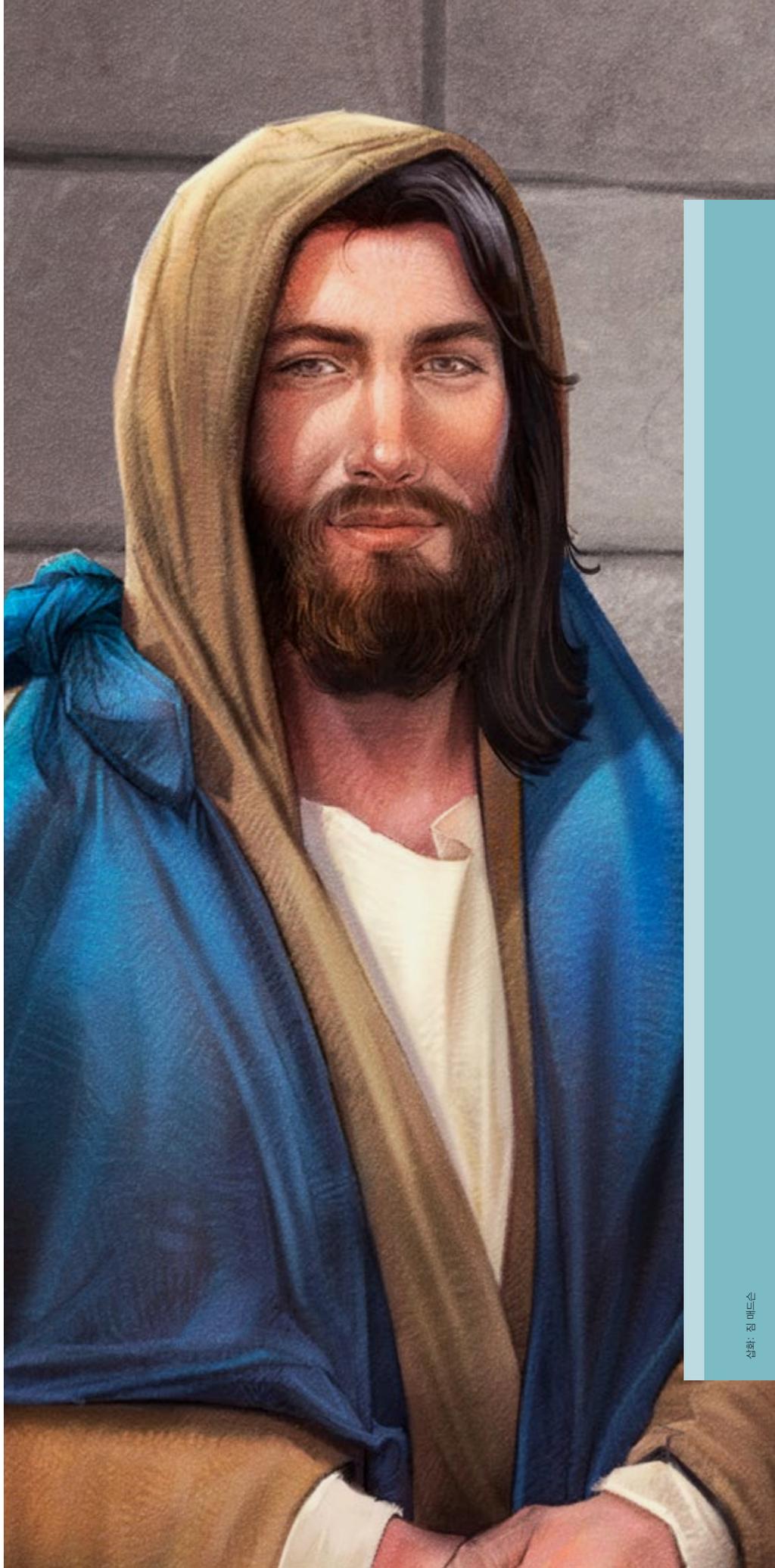
제럴드 코세 감독, 감리 감독,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2015년 6월 27일.





예수는 그리스도 이십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간증



전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라고
 권유하셨다.(교리와 성약
 19:23)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구절은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성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분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 방법은 교회의
 회장들을 통해서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후기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과 관련하여 구주께서
 전세, 현세, 내세에서
 담당하신 신성한 역할에 관해
 간증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그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장자이심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도록 천국 회의에서 택함 받고 예임되셨음을 알며,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사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압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 제10대 교회 회장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 세상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들을 지시하실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의 사명, ...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로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분께서는 부활의 문을 여셨으며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²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 제11대 교회 회장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사이야서 3:5 참조) 그분은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선택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지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생명과 빛의 근원이십니다.”³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 제13대 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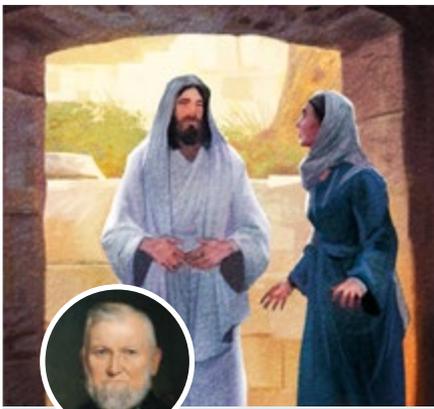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간절함으로, 저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감사는 형언할 수 없습니다.”¹¹

토마스 에스 몬슨(1927~2018) 회장, 제16대 교회 회장

현세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권능을 가진 이는 아버지의 명령하에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⁴

윌포드 우드럽(1807~1998) 회장, 제4대 교회 회장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모범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다 주실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가 묶여 있는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오셨으며, 무덤의 승리와 사망의 쓰는 것으로부터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⁵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 제7대 교회 회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핍박받는 자에게 위안을 주시고, 사랑의 복음이 주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며,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인간의 구원을 마련해 주는 조직, 곧 그의 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⁶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 제12대 교회 회장

내세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⁷

조셉 스미스(1805~1844) 회장, 제1대 교회 회장

“그분은 ...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버지, 메시아, 평강의 왕, 구속주, 세상의 구주로 승리하여 일어나셨습니다. ... 그는 ... 모든 것에 대해 승리를 거두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⁸

존 테일러(1808~1887) 회장, 제3대 교회 회장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며 우리 행복의 열쇠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따릅시다. 그분을 우리의 귀감과 지침으로 삼읍시다.”⁹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 제14대 교회 회장

“저는 구주요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에 대해 충분히 감사를 드릴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삶의 절정기에 맞은 그분의 희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희생을 통해 죽음의 사슬이 끊겼으며 만인의 부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를 넘어, 해의 영광의 문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습니다.”¹⁰ ■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제15대 교회 회장



주

1. 조셉 필딩 스미스, “암흑으로부터”, 성도의 빛, 1971년 10월호, 2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리(2000), 18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 성도의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69~70, 74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허버 제이 그랜트(2002), 223, 224쪽, 부분 수정.
6. 스펜서 더블유 김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길”, 성도의 빛, 1978년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43~44쪽.
9. 하워드 더블유 헌터,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빛,

10. 고든 비 힝클리, “나의 간증”,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52쪽.
11. 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야호나, 2008년 5월호, 90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

여러분은 ...

“세상이 있기 전 태초에 계셨”다.(교리와 성약 93:7)

“자라며 강하여”졌다.
(누가복음 2:40)

“지혜와 ...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계속하여 은혜에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교리와 성약 93:13)



“또한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교리와 성약 93:23)

복음 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진다.

교육과 좋은 선택과 경험을 통해 지혜가 자라난다.

신체적으로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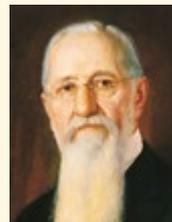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93:27 참조)



여러분 에 관한 사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버지이신 예수님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나, 신앙과 지식, 이해력과 은혜가 증대되어, 충만함을 받으시었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받아서, 예수께서 충만함을 받으신 것처럼,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승영에 이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년), 153쪽.

구주와 그분의 생애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이해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모 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이사야 55:8~9; 아브라함서 3:1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모세서 4:2)로 삼으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니신 영광을 얻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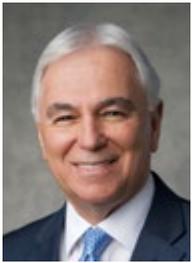
그러나 구주가 위대하시다 하여 우리와 너무 거리를 둔 나머지 그분을 따르라는 권유를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요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현대의 계시를 보면,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진정 달성 가능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 관한 사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께서 가셨던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경로를 따라 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두신 충만한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p>“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로 은혜를 받으셨다.(교리와 성약 93:12) 이는 예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온전히 알고 계시지 않았으며, 모든 권능을 지니신 것도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분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점점 더 많은 지식과 권능을 받게 되었다.</p>	<p>“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p>	<p>“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15)</p>
<p>태어났을 때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나 점차 그 깨달음이 자라났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통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과 권능을 주신다.(니파이후서 28:30)</p>	<p>유혹을 받는다.</p>	<p>(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죄를 범한 적이 있다. 그러나 회개하고, 침례 받고, 성신을 받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다.</p>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른 사실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따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예를 들어, 그분은 침례받으셨고 여러분도 침례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우면, 그분께서 이생의 여정에 관한 한, 진정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오늘날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현대의 선지자들에 대한 간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1977년 6월에 침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스물 여덟 살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현대의 선지자들에 관한 신앙과 지식을 얻게 된 데에 있었습니다.

제가 열두 살 되던 해에 우리 가족은, 그러니까 저와 부모님, 남동생과 두 여동생은 처음으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들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에 모인다면 가정의 밤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에 무척 섭섭해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나는 첫번째 시현과

설명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일곱 번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만 보내라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더 배울 것은 없겠다.”

5년이 흘러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른 지방에서 일자리를 얻어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선교사들이 다시 부모님 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 귀를 기울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제게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댁에 머물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워드 선교 책임자이셨기 때문에 오후마다 선교사들이 잠시 저희 집에 들러 일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조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들이 저를 보며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인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큰아들입니다.”

“회원인가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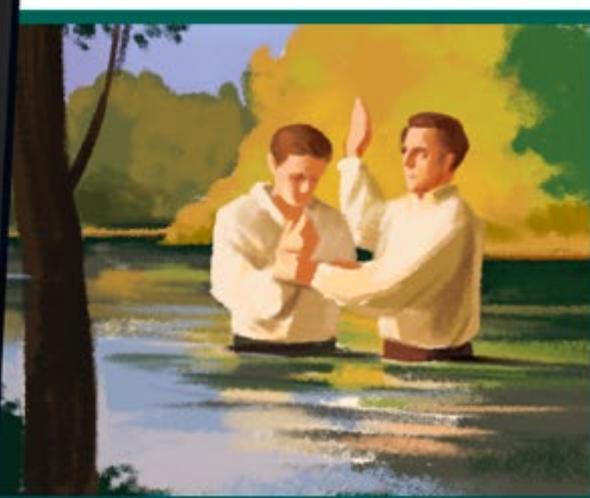
“아드님이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군요.”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관해 알게 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한 여성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오후 다섯 시쯤에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제가 바로 옆방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전에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셉 스미스라는 한 소년 선지자와 첫번째 시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방에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집에서 나왔을 때, 영이 제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이 이 여성에게 가르친 대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조셉 스미스의 역사를 공부하고 주님께 그가 정말 선지자였는지 기도해 본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난 지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좋은 일도 하고 있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영과 씨름을 벌인 끝에 저는 그날 밤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침례와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 대해 읽었습니다.

상화: 데이비드 맬런

O DE
MON
RINA
E
ENIOS
LA DE
NDE
LOR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역사를 읽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죠?” 어머니는 본인의 경전을 주시며 조셉 스미스—역사 부분을 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읽고 깊이 생각한 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내용이 참된지 여쭙 보았습니다. 모든 단락을 그런 방식으로 끝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간절히 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튿날 아침 9시 20분까지 계속 했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제게는 매우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된 이상 선교사를 만나 침례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자매 선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침례 받아야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제가 어떤 토론을 듣고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는데 이대로는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지역 지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대한 단기간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역 지도자인 선교사는 침례 접견 일정을 잡으면서, 와드 선교 책임자에게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와드 선교 책임자에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제가 침례받기를 수년 동안 기도하셨답니다.”

침례식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감미롭고

놀라운 느낌이었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느껴졌고, 그래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살아 있는 선지자를 따르다

저는 1820년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었으므로, 항상 복음 안에서 충실하고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봉사하고 부름을 완수하며 모든 노력을 교회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침례받은 지 2주가 지나자 스테이크 회장이 저를 스테이크 청년 독신 성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회장님께 스테이크가 뭐냐고 여쭙 봐야 했지만 말입니다.) 또, 2주 후에는 지역 청년 대회 준비를 맡았습니다. 그 대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청년 대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1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8년 동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 왔습니다. 저희에겐 네 자녀와 열 명의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내린 결정 덕분입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 계신 선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100퍼센트 순종하도록 도와주겠어요?” 아내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례 받은 후에 처음으로 들은 선지자의 말씀은 김볼(1895~1985) 회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자립하고 현명하게 돈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라는 권고를 주셨습니다.¹



나는 김볼 회장의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족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으며, 그 덕분에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선지자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지자들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간증을 얻다

선지자를 따르십시오.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복음에 관한 저의 신앙과 지식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간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제 소망은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젊은이가 진정한 의도와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조셉 스미스의 역사를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경전에 있는 첫 번째 시현을 읽으면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 관한 또 다른 기록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²

조셉 스미스는 빛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조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 전해 주시는 신성한 지식입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들었다면,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경전과 연차 대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교회 잡지, LDS.org 웹사이트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찾아 공부하십시오. 세미나리, 주일학교, 정원회나 공과 시간에 선지자들이 주신 권고를 배우십시오. 선지자들이 정하신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하는 모든 일에서 이해력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영도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

주

1. 스펜서 더블유 킴볼, "복지 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4~120쪽.
2. "첫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topics.lds.org 참조.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우리 가족은 축복받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열쇠

다

섯 달이나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실수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이후로 나는 줄곧 추락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조금이라도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마다
수치심은 더욱 커져 갔다. 평안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죄를 속죄하셨기에
나는 계속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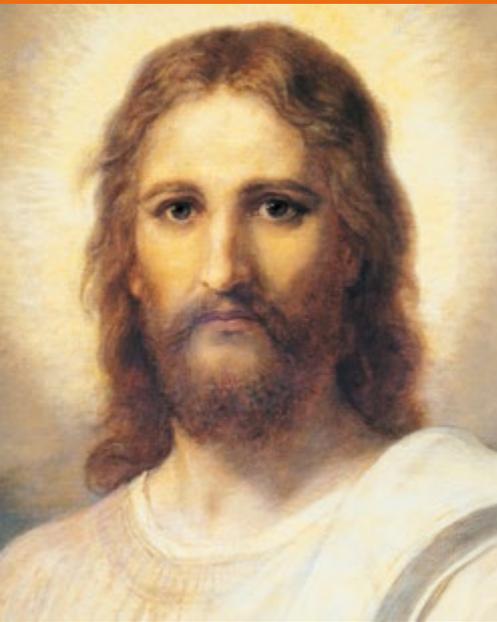


사진: GETTY IMAGES; 그리스도의 모습: 헤인리히 호프만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도 해 봤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도 받았다. 하지만 도무지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심하게 채찍질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러한 기분 속에서 나는 여름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대회 동안 우리는 구주의 속죄에 중점을 두고 많은 내용을 공부했다. 어느 날 나는 이노스서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다.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이다.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이노스서 1:5~6)

이 구절이 내 마음속에 힘있게 와닿았다. 나는 이노스도 나처럼 무언가 잘못했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노스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힘써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이라는 말로 묘사했다.(이노스서 1:2 참조) 밤낮으로 기도한 끝에 이노스는 마침내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그가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라고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응답하셨다.(이노스서 1:7, 8)

그렇다! 이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 이노스도 구주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울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구주께서 나의 삶에 그와 같은 평안을 가져다주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후로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했다. 나쁜 기분을 물리칠

힘을 주시기를,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멈추게 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수많은 기도를 드린 결과 나는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던 나쁜 기분에서 헤어 나오게 되었다. 마침내 내 마음속에도 평안이 찾아왔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죄를 지은 후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를 통해 이미 값을 치르셨기에 그 죄로 나 자신을 계속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께도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지만, 그분은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하셨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분과 나의, 그리고 하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삶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우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경전, 특히 묵시경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고무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좋은 매체를 접하려고 노력한다.

여전히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은 사라진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평안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더욱 강한 사람이 되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할 권능과 권세를

지니게 되셨습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2017년 10월 연차 대회.

해답을 찾아서

내가 완전히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십이사도 정원희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회개는 변화하고자 분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침례 성약과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9쪽) 완전한 회개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교리와 성약 58:43)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하며 심각한 죄는 감독에게도 고백해야 한다. (죄를 고백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감독에게 이야기한다. 감독의 역할은 여러분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한 후, 자신이 완전히 회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회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즉, 여러분의 소망과 기분, 외양, 관계, 행동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느껴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회개는 성신의 동반을 불러올 것이다. ■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라 두렵기도 합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생과 영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전긍긍하며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계명을 지키고 훌륭한 조언을 따른다면, 이 결정에서 여러분은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관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잠재적으로 “올바른” 선택지는 여럿 있다. 많은 사람을 알아본다. 높은 표준을 따르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합당하게 생활한다. 청년 성인일 때, 함께 성전에 갈 수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 잠재적인 배우자는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충분히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모님께 조언을 구한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교리와 성약 9:8)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도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하고 나면, 서로에게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들 공간



“초대해 줘서 고마웠어요.”

나는 네이트와 첫 데이트를 하면서 그가 후기 성도가 아닌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매우 정중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그와 또 만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음 주에 네이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새해 전야에 데이트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해요, 네이트. 그날은 일요일 밤이에요. 우리 가족과 저는 방송으로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나는 문득 영의 속삭임을 느끼고는 이렇게 말했다.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봐도 좋아요.” 네이트가 그러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

나는 선지자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새해 결심을 세우라고 권고했을 때, 강한 영을 느꼈다. 네이트는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집에 돌아간 후, 내 마음은 편안하고 평온했다. 다음 날 아침, 네이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젯밤에 초대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이트가 말했다.

“친구들은 모두 파티를 했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데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저를 초대해 줘서 고마웠어요. 기분이 참 좋아요.”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속삭이는 성신의 느낌을 받았다. 나의 친절함 행동으로 네이트는 의로운 삶에서 오는 축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염려하시며 항상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

레이철 에이치, 미국 텍사스주

티후아나에서 길을 잃음

언젠가 우리 가족은 차를 몰고 멕시코 티후아나로 가서, 몇몇 회원을 방문하고 선교 본부에 소정의 물품을 가져다준 일이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통과한 후, 우리는 곧 길을 잃었다. 우리 중 아무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내 누이는 차를 세우고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다. 누이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 스티커가 붙어 있는 택시였다! 나는 소리쳤다. "성전!"

누이 중 한 명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마침 도로에 서 있던 그 택시로 뛰어갔다. 누이는 택시 기사와 잠깐 이야기하고, 다시 달려와서 택시 기사가 자기 차를 따라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차량 사이를 누비며 빠져나가는 택시를 따라 티후아나의 거리를 지나 선교 본부에 도착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간증이 더욱 굳건해졌다. 가족이 함께 충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

코빈 디,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리 가족 역사는 정말 다 끝났나?

나는 우리 가족의 가족 역사 사업을 정말로 돕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계도에는 7세대까지 기록되어 있었고, 그분들의 성전 의식은 모두 다 마무리된 상태였다. 아버지는 지난 11년 동안 더는 새로운 가족 정보를 찾을 수 없으셨다. 나의 열망과 희망은 희미해져 갔다. 나는 낙담하여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우리 가족 역사는 다 끝났으니 이제 성전에 가져갈 이름을 어디에서 찾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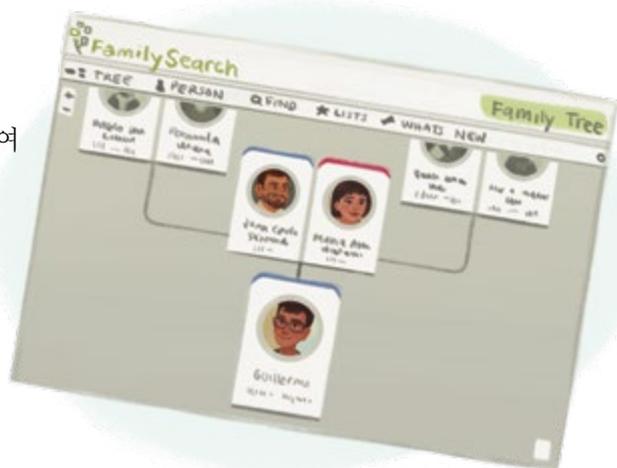
나는 아버지가 FamilySearch 가계도에 올려놓으신 정보를 전부 살펴보기로 했다. 그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한 음성이 들렸다. 나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나와 성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과 내가 친척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내 소망도 사그라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 역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어머니와 함께 금식을 하기로 했다. 다음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를 하면서 매일 하던 대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에 문득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새로 발견한 정보 덕분에 나는 열네 살에 총 400개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게 되었다. 정말 행복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이 이름을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 또 그렇게 많은 이름 카드를 받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대해 간증한다. 우리가 가족 역사를 할 때, 영은 우리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준다. ■

기예르모 데, 칠레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세 가지 언어

우리 아빠는 홍콩 출신이고 우리 엄마는 중국 광시 출신이세요. 저는 광둥어와 표준 중국어, 영어까지 세 가지 언어를 해요. 저희 와드에서는 성찬식 시간에 광둥어와 표준 중국어를 쓰고, 초등학교 시간에는 영어 지부와 함께 모임을 해요.

저는 언제든 도울 준비를 함으로써 제 빛을 비추려고 해요. 무언가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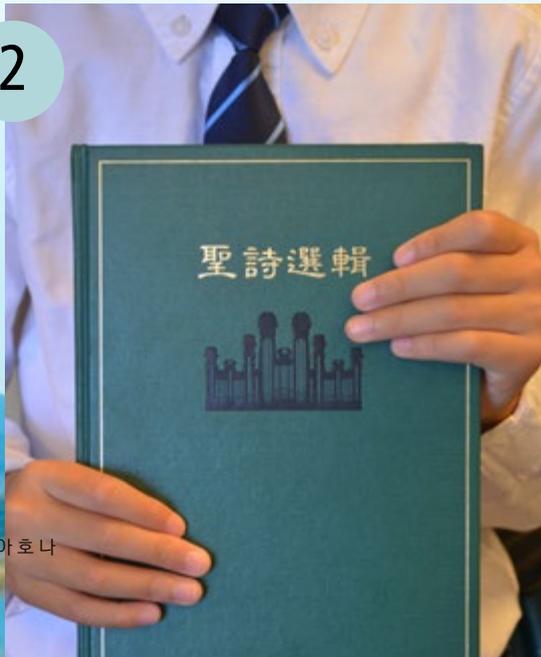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런이에요.**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살아요.

찬송가 도우미

매주 일요일에 저는 선교사를 도와 주보를 나눠 줘요. 모든 사람이 주보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죠. 찬송가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 권 가져다줘요.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말이죠.

2





끝까지 해내기
 가끔 교회에서 활동 모임이 있을 때면 저는 항상 남아서 의자와 탁자 치우는 일을 도와요. 초등학교 성찬식 발표를 할 때는 제가 맡은 부분을 발표하는 게 좋아요.



3



4

미래의 선교사

언젠가 선교사로 나갈 거란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돼지저금통에 선교사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5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기

저는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서 할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을 돌봐 주러 오셨을 때도, 우리는 꼬박꼬박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 초등학교에서 의자를 꺼거나 정리하는 일을 도와요.
- 교회에서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요.
- 쓰레기를 주워요.
- 모두에게 찬송가가 있는지 확인해요.
- 가족이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도와요.

별을 보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빛을 비추나요? 여러분의 별 사진을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 그리고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세요.



꿈을 쓰기로 했어요

유스티나 리히너

실화에 근거함

“또 그들은 자유로이 ... 택할 수 ... 있나니”(니파이후서 2:27)

○ 스티나는 자리에 허리를 쭉 펴고 앉았어요. 새 연필들은 책상 머리에 놓았죠. 오늘은 등교 첫날이었어요.

유스티나는 반 친구들을 만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베르너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쓰기 시간이예요.” 베르너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눠 주셨어요. “30분 시간을 줄게요. 그리고 잠깐 실 거예요.”

유스티나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아, 안돼. 벌써 쓰기 시간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작년에 유스티나는 쓰기와 읽기를 힘들어했거든요. 친구들은 모두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는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올해도 작년 같으면 어찌죠?

유스티나는 연필을 손에 쥐고 종이를 바라봤어요. 조바심이 났죠. 다른 친구들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유스티나만 빼고요.

베르너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글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 선생님이 화를 내실까요? 선생님이 화를 내신다고 해도, 글쓰기보다는 나올 것 같았어요.

유스티나는 선생님 책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베르너 선생님, 이번 쓰기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베르너 선생님은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은 유스티나를 보고 빙그레 웃어 주셨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렴. 네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재능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란다.”

유스티나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베르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노력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과 비슷한 말이었어요. 초등학교 공과반에서 “자유로이 택할 수 있나니”라는 구절을 읽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올해에는 학교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마 유스티나는 학교생활이 달라지게 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스티나는 연필을 손에 쥐고 종이를 바라봤어요. 이제 유스티나의 마음은 편안해졌어요. ‘좋았어. 해내고 말거야.’ 유스티나는 생각했어요.

쉬는 시간 종이 올렸어요. 유스티나는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유스티나는 종이의 절반을 넘길 만큼까지 썼어요! 유스티나는 손을 들었어요. “남아서 더 써도 되나요? 조금만 더 쓰면 끝나요!”

베르너 선생님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스티나는 마침내 글자로 꽉 채운 종이를 선생님께 드렸어요. 손이 아주 조금 아프고 머리도 좀 아팠지만 유스티나에 얼굴엔 웃음이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쓰기를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날에는 읽기 시간이 있었어요. 베르너 선생님은 모두에게 20분 동안 책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유스티나는 선생님 말씀처럼 하려고 노력했어요. 유스티나는 책을 펴서 소리 내어 읽었어요.

유스티나는 매일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읽겠다는 선택, 글을 쓰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어쩌면 읽기와 쓰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지도 몰라요!

유스티나는 도서관에 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가서 책을 빌렸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해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 후 유스티나는 쉬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을수록 쓰기도 잘 할 수 있었어요.

어른이 된 후, 유스티나는 자신이 쓰기와 읽기를 열심히 하겠다는 선택을 했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제 읽기랑 쓰기는 유스티나가 제일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되었지요. ■

글쓴이는 독일 라인란트팔츠에 산다.



어른이 된 유스티나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티나예요! 쓰기를 좋아하게 된 후에,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에서도 글을 썼고, 대학에 가서 글쓰기를 더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가가 되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처럼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잡지나 웹사이트, 신문에 실릴 글도 쓰고 있어요.



언제나

조던 라이트
실화에 근거함

“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도록 주님 방법 보여 주셨네”(어린이 노래책 98쪽)

세스는 뒷좌석에서 방방 뛰며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불렀어요. “가만히 좀 있어, 세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운전에 집중이 안 되잖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스가 말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예요!”

아빠가 웃으셨어요. “갓난아이 남동생을 만날 일이 그렇게 기대되니? 네가 그렇다니 아빠도 기분이 좋구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세스는 엄마가 계신 병실로 곧장 달려갔어요. 엄마가 병원에 계신 지 벌써 5일이나 되어서 병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케일럽이 아팠고, 엄마도 조금 아프셨기 때문에 엄마는 병원에 계속 계셔야 했어요. 세스는 케일럽을 보여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계속 “아직은 안 돼.”라고 하셨지요. 엄마는 케일럽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될 정도로 튼튼해지면 의사 선생님이 알려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의사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동생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지요!

병실에 들어가 보니 엄마는 벌써 품에 케일럽을 안고

계셨어요. 세스는 달려가서 갓난아이 남동생을 보았어요. 케일럽은 정말 작았어요. 세스의 사촌 동생이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케일럽의 코와 귀가 뭔가 달랐어요. 작은 요정 같아 보였죠!

“안녕, 세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와서 손을 씻고 아기를 안아 보렴.”

세스는 특별한 비누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침대로 올라가서 엄마 옆에 앉았죠. 엄마가 몸을 기울여 세스에게 아기를 안겨 주셨어요. 아빠는 세스에게 손을 어디에 두고 아기를 안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지요.

세스는 케일럽을 내려다봤어요. “안녕, 케일럽.” 세스가 말했어요. “나는 네 형 세스야. 넌 내 방에서 자게 될 거야. 내 장난감도 다 보여 줄게. 공원에서도 같이 놀자.”

아기 케일럽은 세스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세스는 케일럽 같은 완벽한 아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스의 팔이 아파지자, 이번에는 아빠가 케일럽을 안아 주셨어요. 엄마가 세스의 손을 잡고 세스의 눈을 바라보셨어요.

“세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에서 구원의 계획에 관해 배웠던 날 기억나니?”

세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참 멋진 날이었죠. 로페즈



형 동생

자매님이 달과 별, 그리고 큰 행성인 지구를 하나씩 막대기에 붙여서 보여 주셨거든요. 세스는 해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나라에 살았고,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이야기 기억해?”

세스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일럽이 아직 많이 아프단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래 살지 못할 거래.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갈 거야.”

세스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품에 안긴 아기도 보았죠. 그리고는 얼굴을 찡그렸어요.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케일럽을 사랑해요. 같이 있으면서 내 방도 같이 쓰고, 같이 놀고 싶어요. 아기도 저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세스를 안아 주셨어요. “물론 케일럽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을 거야. 우리가 케일럽의 가족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정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와 엄마는 성전에서 결혼했어.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지. 너와 케일럽은 영원히 우리의 자녀야.”

“그 말은 바로 케일럽이 언제나 네 동생이라는 뜻이란다.”

아빠가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하늘나라에서 케일럽을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세스는 슬펐어요. 화가 나는 것도 같았어요. 하지만 케일럽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는 생각을 하고는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세스는 손을 뻗어 아기 케일럽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하늘나라에서도 내 동생일 거야. 그건 정말 멋진 일이지.”

엄마가 세스의 뺨에 뽀뽀해 주셨어요. “그래, 정말 멋진 일이야.” ■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끝이란 없으며 오직 영원한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77쪽.



“온 인류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제 간증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6쪽에서 발췌

나는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성약

경전 한 구절을 읽은 후, 그림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아브라함서 1:1~2
2. 아브라함서 2:3~6
3. 아브라함서 2:8~12
4. 창세기 13:14~18
5. 창세기 17:3~8
6. 창세기 17:15~19
7. 창세기 18:10~14
8. 창세기 21:1~3



상화: 델린 마쉬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성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고, 또 축복이 임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계속 순종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의 100살이 다 되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순종할 때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온답니다.

- 아브라함서 2장 9절을 외웁니다.
- 순종하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한 일과 거기에서 느낀 것을 적습니다.
- Scripturestories.lds.org에서 구약전서 이야기 8장을 시청합니다.
- 나는 순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젯세마네

쉽게 편곡됨

감정을 실어 ♩ = 44-48

작사, 작곡: 멜러니 호프만

Dm C Am B \flat C B \flat

고요한 동산 오르신 예수 무거운 발걸음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contains the first two staves of music. The treble clef staff has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b) and a 6/8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melody with eighth and quarter notes, and rests. The bass clef staff provides a simple accompaniment with quarter notes.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treble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 2, and 3.

Dm C Am B \flat C Dm

사랑하는 맘으로 주님 그 곳에 오르신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contains the third and fourth staves of music. The treble clef staff continues the melody. The bass clef staff continues the accompaniment.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treble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 and 5.

C F C F B \flat F C

젯세마네 예수께서 날 사랑하셔서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contains the fifth and sixth staves of music. The treble clef staff continues the melody. The bass clef staff continues the accompaniment.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treble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 3, 1, and 4.

B \flat C Dm (C) (Dm) C

오르신 그곳 우리 겪는 모든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contains the seventh and eighth staves of music. The treble clef staff continues the melody. The bass clef staff continues the accompaniment.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treble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4, 2, 3, and 1.

Am B \flat C B \flat

슬픔고통 잘 못 겪으셨던 그분 모두

Detailed description: This system contains the ninth and tenth staves of music. The treble clef staff continues the melody. The bass clef staff continues the accompaniment.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treble staff. Fingerings are indicated with numbers 1 and 5.

Copyright © 2018 by Melanie Hoffman.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임시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복사할 수 있습니다.
복사할 때마다 이 저작권 표시를 포함해야 합니다.

Dm C Am B^b C Dm

잠 든 중 에 그 분 홀 로 사 명 을 다 하 셧 네

C F Dm C F B^b F C

겻 세 마 네 예 수 께 서 날 사 랑 하 셔 서

B^b C Dm C F C

오 르 신 그 곳 세 상 가 장 어 려 운 그 일 세

B^b C F C B^b C F C

상 가 장 괴 로 운 고통 가 장 큰 싸 움 에서 거 든 승 리

B^b F C B^b F C Dm C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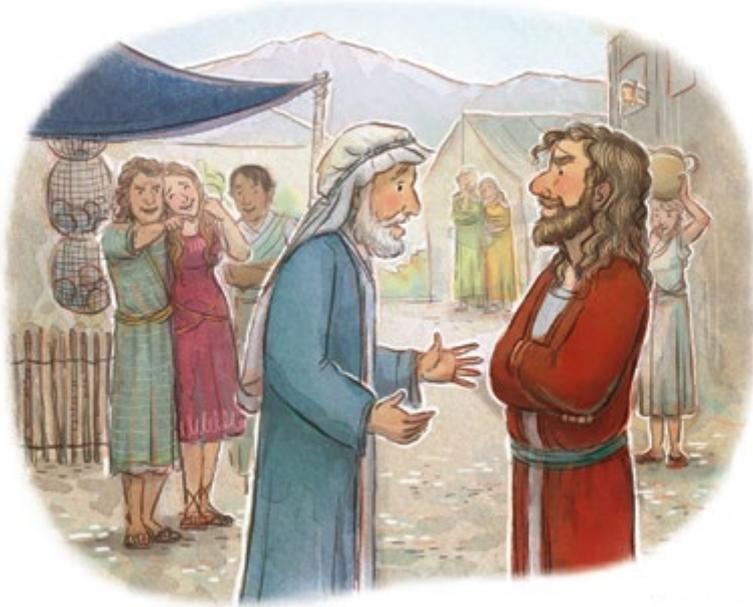
주 님 이 루 셧 네 주 님 이 기 셧 네 겻 세 마 네
겻 세 마 네

B^b C F B^b F C B^b C Dm

예 수 께 서 속 죄 의 선 물 주 러 오 르 신 그 곳
예 수 께 서 속 죄 의 선 물 주 신 겻 세 마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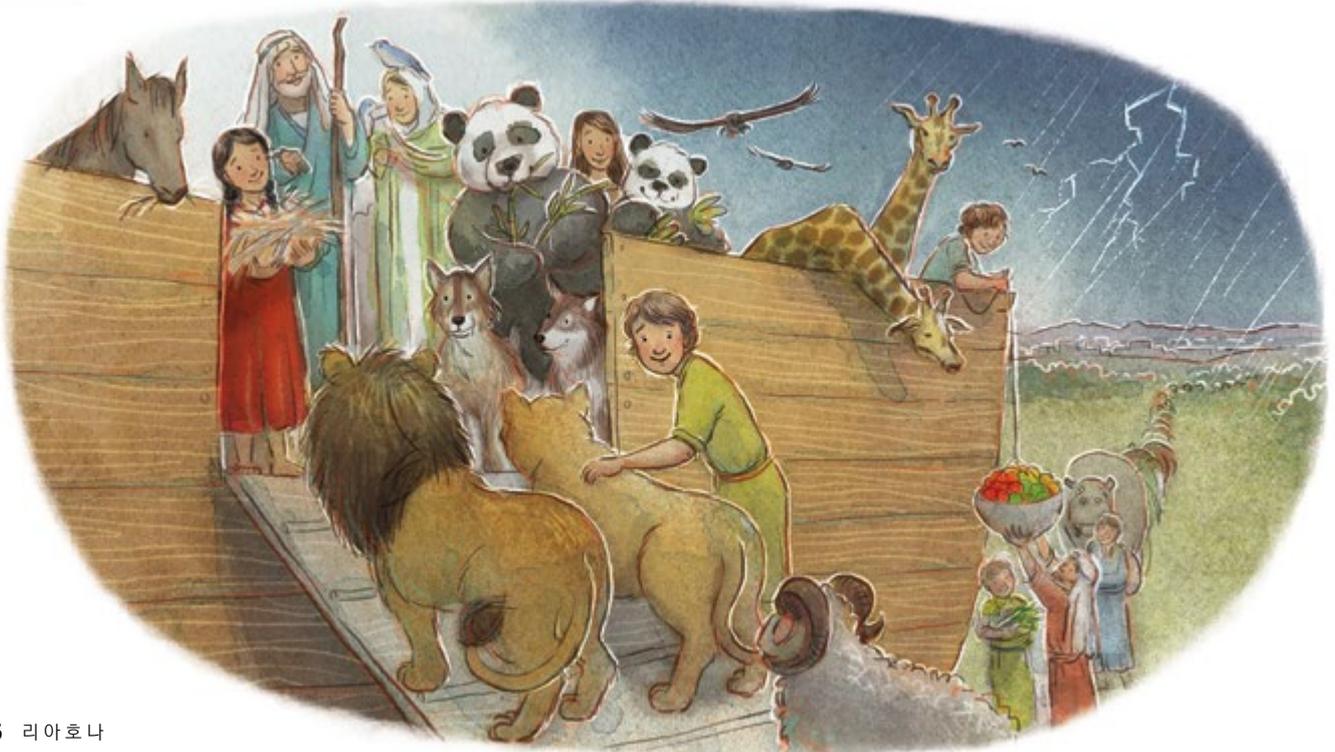
노아

김 웹 리드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옳지 못한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감한 선지자 노아를 보내셨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나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지구에서 나쁜 것들을 모두 없애 버리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라는 큰 배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을 모아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일 밤낮 동안 쉬지 않고 내렸어요.
 마침내 지구 전체가 물로 뒤덮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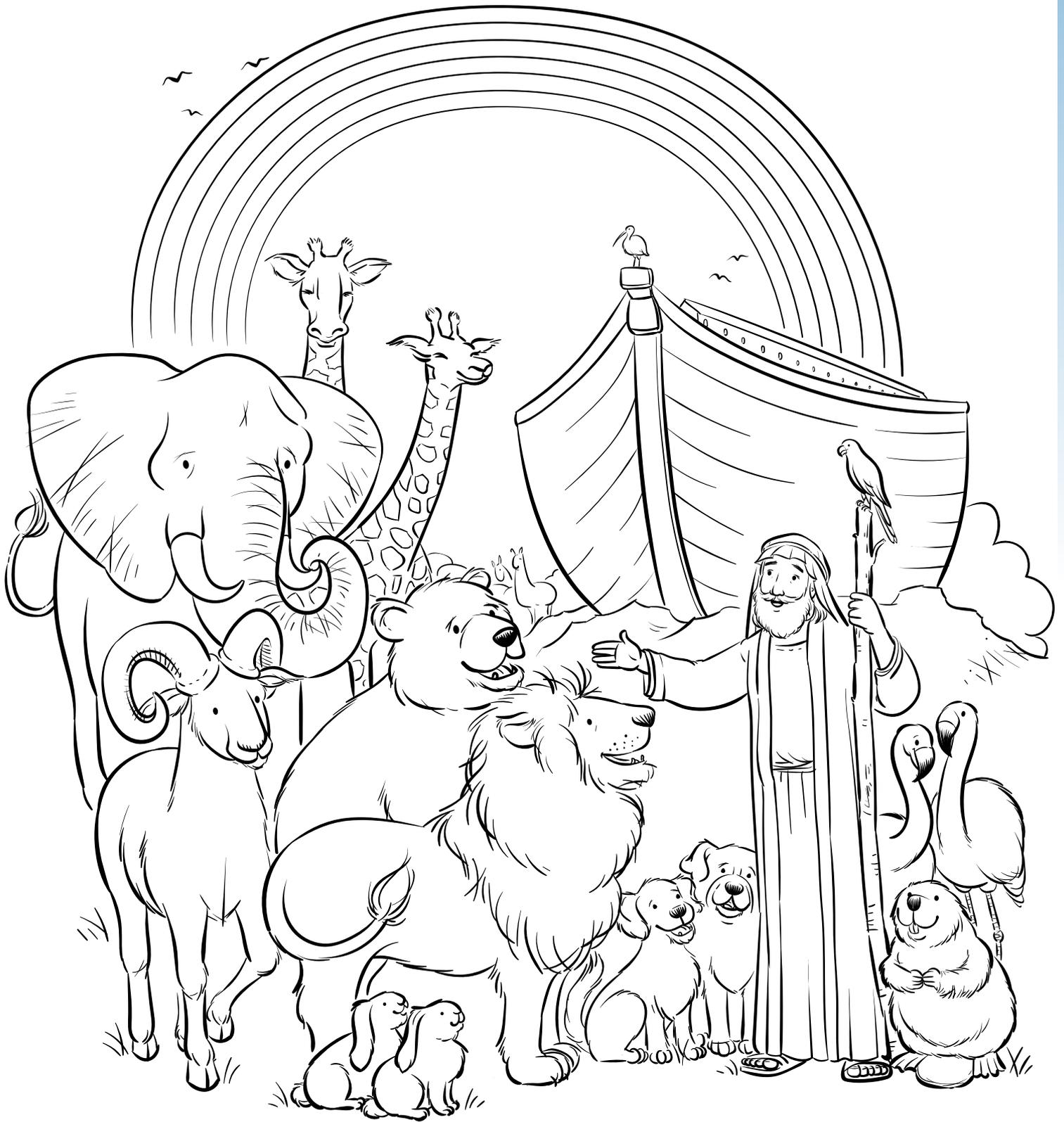
마침내 비가 그치고, 홍수는 끝이
 났어요. 노아는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았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노아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나는 축복을 받아요. ■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셔요



삽화: 아이프릴 스톤트



로버트 디 헤일츠
장로(1932~2017)
십이사도 정원회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은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경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에
관한 내용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복돋우고, 고무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모든 경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장은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기도입니다. 그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세상이 아버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은 명을 받은 모든 일을 다
수행했음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주께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셨는가를 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아버지께
대한 순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를 찾아 돌보신 일, 제자를
부르신 일, 팔레스타인과 미대륙에서



가르치신 일,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한복음 8:28) 이
얼마나 완벽한 순종의 모범입니까!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구주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마태복음 19:21)
그분의 단순한 권고는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다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구주의 성스러운 증인으로서 간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저의 가장 큰
바람이라면, 제 간증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오늘날
선지자를 통해 계시로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이 필멸의 기간이 지난 후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우리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구주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서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12~13쪽, 번역 수정. 헤일츠 장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를 동영상으로 보려면, prophets.lds.org
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을 클릭한다.



Pablo Picasso 1943

젯세마네, 예수는 나의 빛,
호르헤 코코 산탄헬로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마태복음 26:42)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성전을 향한 여정

성전에서 인봉받기 위해
남미를 관통하는 험난한
여정에서 아내와 나는
계속되는 기적을 목격했다.



44쪽

청소년

50쪽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간증

교회 회장들의 이 간증을 읽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다.”(교리와 성약
19:23) 그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을
증거한다.

어린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이 작지만 의미 있는 방법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찾도록 도울
수 있는가?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Thomas S. Morrison



리아호나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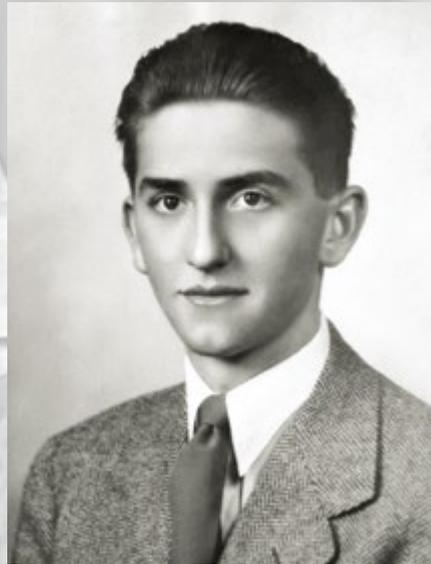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추도문

1927~2018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만큼 밝습니다.”¹



아들 클라크와 즐겁게 낚시를 하는 몬슨 회장(중앙),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평생 비둘기를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았던 몬슨 회장.



위: 세발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하던 활동적이고 행복한 어린 소년 토미 몬슨,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위 오른쪽) 훌륭한 봉사 활동에 대한 봉사상을 수상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몬슨 회장의 개인적인 모범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잘 드러낸다. “[그리스도]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사도행전 10:38)



2008년 2월 3일부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봉사했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2018년 1월 2일에 서거했다. 그는 1963년부터 1985년까지 교회의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했다. 몬슨 회장은 2013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프랜시스와의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선지자이자 친구

솔트레이크시티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은 한 응급실 환자를 퇴원시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치료는 이미 끝났고 남자도 다 회복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남루한 차림새와 불안정한 생활 환경을 고려하면 퇴원을 시켜도 괜찮을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의사가 물었다.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사실은, 가끔 저를 돌봐 주는 친구가 한 명 있긴 합니다. 톰 몬슨이라는 친구입니다.”²

그의 오랜 친구가 말하듯,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은 “약자들과 불우한 사람들의 특별한 친구”였다.³ 그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던 30년이 넘는 시간을 포함하여 온 생애 동안 연로한 벗들과 낯선 이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중요한 모임이 있더라도 영의 속삭임을 느끼면 아픈 어린이들에게 신권 축복을 주고자 시간을 냈다. 그는 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 유명한 관계자나 공적인 인사들을 초대하는 대신 어린 시절에 가난한 동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을 데려가곤 했다. 그는 또한 웨스트 고등학교의 동창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톰 몬슨”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고 나갔다. 그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토마스 몬슨은 “절대로 사회적 지위와 외양, 또는 겉으로 드러난 업적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그는 소박한 50년 지기에게도 주지사나 상원 의원, 혹은 유명한 사업가에게만큼, 혹은 그보다 더 큰 관심을 쏟는 사람이었다.”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6대 회장이 서거함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한 교회 안팎의 수백만 친구들과 지지자들은 충실한 친구 한 사람을 잃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제나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⁵라는 태도를 지녔던 몬슨 회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들이 복잡한 사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교회 웹 페이지를 구축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도록 홍보 캠페인을 벌이며,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는 데 목적을 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널리 세계로 발돋움하는 두드러진 치적을 남겼다. 이러한 것 중에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연령을 낮추고, 선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확대(기술 활용 포함)하며, 전 세계 곳곳의 회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포럼 등이 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회 지침서가 편찬되었다. 가족 역사 사업이 간소화되어, 대리 침례 및 구원을 위한 기타 의식들을 받기 위해 이름을 찾아 성전에 제출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몬슨 회장이 이룬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 가운데서,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강인한 모범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가 좋아한 성구 중 하나인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나사렛 예수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몬슨 회장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린 이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했으며, 헐벗은 이를 입히고, 병든 이를 방문했으며, 외로운 이들이 고독과 절망에 갇혀 있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마태복음 25:34~40 참조) 몬슨 회장이 지닌 인도주의의 정신과,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며, 영을 따르고자 헌신하는 모습에 이끌려 수십 년 동안 그에 대한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복돋우고 위로와 위안을 주며 응원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는 사람을 별로 만나 보지 못했다.”⁶ 토마스 에스 몬슨은 어려움 가운데 기회를 찾고 봉사하며, 가족을 위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같은 성역의 모범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었다.

몬슨 회장이 2010년 100세
생일을 맞이한 델마
페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몬슨 회장은
연로한 벵들과 낫선
이들을 자주 방문했다.





너그러운 가정

조지 스펜서와 글래디스 콘디 몬슨 부부는 솔트레이크시티를 가로지르는 철로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우스 500번가와 웨스트 200번가가 만나는 모퉁이 지점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공황을 겪으며, 스코틀랜드에서 온 개척자들의 후손인 글래디스의 친척들에 둘러싸여 가정을 꾸려 나갔다. 조지의 조부모는 스웨덴과 영국에서 교회의 회원이 된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솔트레이크시티에 정착하였다. 1927년 8월 21일, 조지와 글래디스의 둘째이자 장남이 태어났다. 아들의 이름은 외조부인 토마스 샤프 콘디와 부친의 이름을 따서 토마스 스펜서 몬슨이라고 지었다.

친인척들과 가까이 살았던 몬슨 가족은 다른 많은 사람과도 사랑을 나눴다. 몬슨 회장은 후에 회고하기를, 그 지역에서는 마을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심심찮게 문을 두드리곤 했는데, 글래디스 몬슨은 그들을 집으로 들여 “그들이 마치 초대받은 손님인 것처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⁷ 또한, 글래디스는 일요일이면 이웃에 살던 “밥 할아버지”에게 드릴 음식을 톰에게 들려 보냈는데, 그럴 때마다 밥 할아버지는 톰에게 10센트짜리 동전 한 닢을 주었다. 그러면 속 깊은 톰은 이렇게 답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엄마가 야단을 치실 테니까요.”⁸ 일요일이면 톰의 부친은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던 자신의 동생 일라이어스를 1928년식 올즈모빌 자동차에 태우고 톰과 함께 도시 곳곳을 달리곤 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시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시다. 그분들이 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⁹ 또한, 몬슨 회장은 아량과 온정이 흐르던 분위기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을 두고 부정적인



토마스
와 그의 형제들은
부모들의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왼쪽
위) 몬슨 회장 역시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할 때 이와 같이 친절을
베풀었다.(중앙)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버지는 그 자리를 뜨는 분이었습니다.”¹⁰

이런 태도와 행동은 당연히 톰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어느 성탄절, 전동 기차 세트를 선물로



어린 시절(위)과 주일학교(아래)에서 배운 교훈들은 그의 삶을 인도했다. 그가 오래전 다녔던 와드 건물(왼쪽)은 이제 없어졌다.

받고 매우 기뻐하던 톰은 그러면서도 이웃에 살던 편모 가정의 아이에게 주기로 했던 덜 좋은 기차 세트에서 기차 하나를 빼 달라고 어머니를 졸랐고, 결국 기차 하나를 더 얻었다.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그 선물을 가져다주러 간 톰은 변변찮은 기차 세트를 보고도 그저 기뻐하는 소년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톰은 집으로 달려가 세트에서 빼낸 기차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차 세트도 가져왔다.¹¹ 나중에 톰은 칠면조나 닭도 먹어 보지 못한 친구의 가족에게 성탄절 만찬으로 자신이 기르던 토끼 두 마리를 내놓기도 했다.¹² 한 여성이 톰과 친구들이 이웃에서 야구를 하다가 친 공이 자신의 마당을 넘어오는 것을 문제 삼자(그녀는 자주 그 공들을 낚아채 가져가 버리곤 했다) 톰은 그





토마스는 군 복무를 마친 후(왼쪽) 프랜시스 존슨을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슬하에 토머스 리, 클라크 스펜서, 앤 프랜시스, 이렇게 세 자녀를 두었다.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 톰은 묵묵히 여름이면 그녀의 마당에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가을이면 그녀의 잔디밭에서 낙엽을 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톰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우유와 쿠키를 주며, 야구공이 가득 담긴 상자를 내주었다.¹³

그러나 몬슨 회장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섰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야단을 맞을 만큼 짓궂은 일도 했다고 자주 시인했다. 한번은 사촌과 함께 동네에 있던 길 잃은 개들을 모아서 뒷뜰에 있는 석탄 창고에 몰아넣어 두었는데, 톰의 아버지가 창고 문을 열자 그중 여섯 마리가 아버지를 향해 뛰어든 일도 있었다.¹⁴ 어느 날 오후에는 초등학교 회장이 톰을 살짝 불러 초등학교 개회 모임에서 많은 소년들이 소란스러운 행동을 한 탓에 마음이 언짢았다고 말했다. 이에 톰은 초등학교 회장의 조력자가 되기로 했고, “초등학교의 규율 문제는 바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¹⁵ 그러나 유혹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오후에 톰은 친구를 설득하여 초등학교 공과를 빼먹기로 했다. 톰은 주머니에서 1페니짜리 동전 하나를 꺼내서 프라이머리 어린이병원을 위한 모금함에 집어넣었고, 그런 뒤 둘은 바로 교회를 나섰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 남은 10센트로 해치 테어리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했다. 그러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톰이 실수로 1페니가

아니라 10센트를 모금함에 넣어 버린 것이었다. 그리하여 둘은 교회로 돌아왔고 톰은 하는 수 없이 1페니마저 모금함에 넣어야 했다. 나중에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한동안 저는 제가 프라이머리 어린이병원에 가장 큰돈을 투자한 사람이었다고 느꼈습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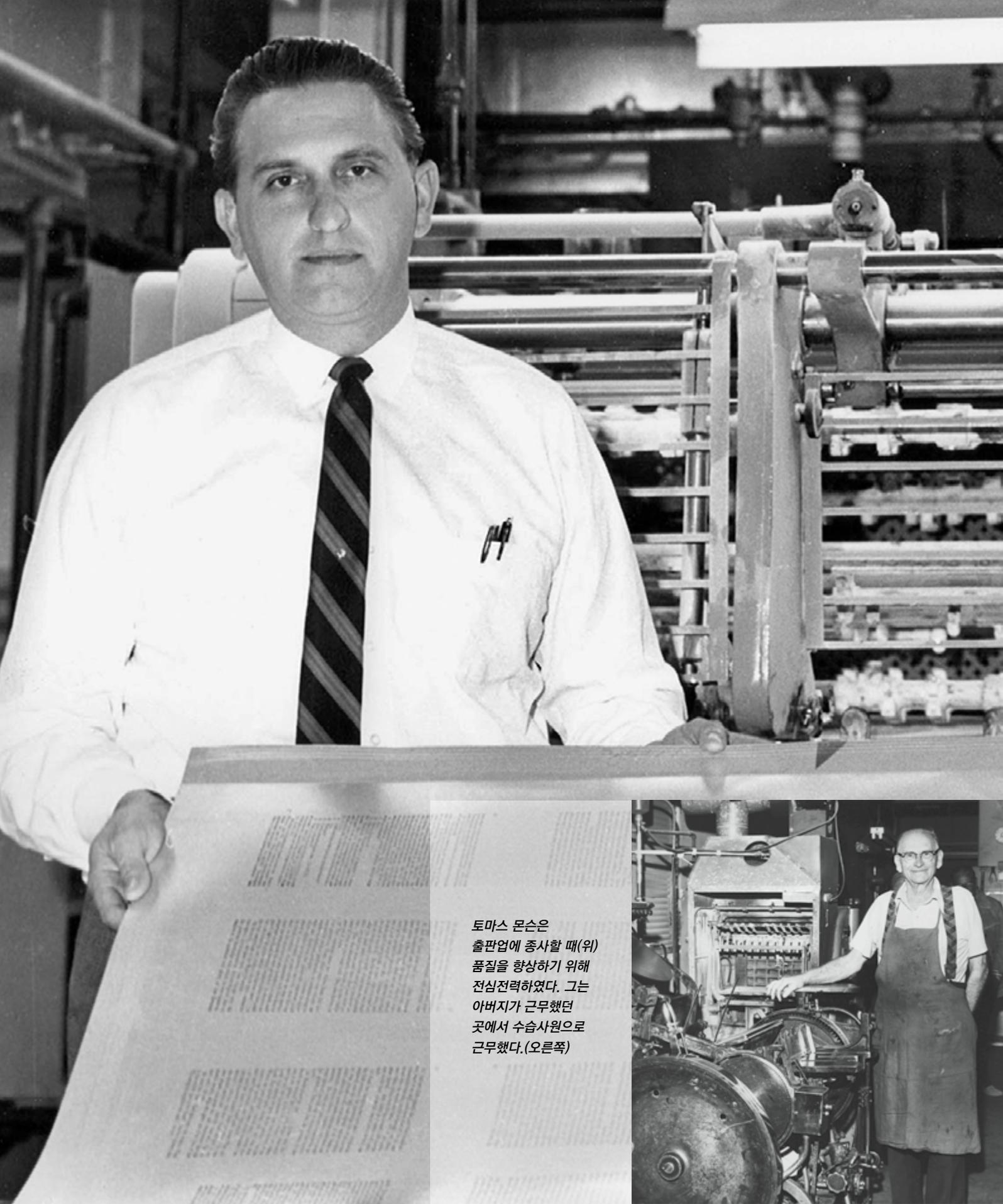
톰은 프로보 캐니언에 있는 가족 별장을 자주 방문했기에 평생 오리 사냥과 야영, 낚시, 강에서 하는 수영을 즐겼다. 한번은 톰이 위태로운 소용돌이에 휩쓸린 소녀를 구한 일도 있었다.¹⁷ 그는 그 가족 별장 근처의 풀밭에다 친구와 함께 어리석게도 불을 지른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이야기를 주요 복음 원리를 전하는 틀로 삼았다.¹⁸

톰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던 집 인근 채프먼 공립 도서관을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책과 작가들을 좋아하게 되었다. 덕분에 그는 나중에 워즈워스, 롱펠로, 브라이언트, 테니스, 셰익스피어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 일부를 길게 인용할 수 있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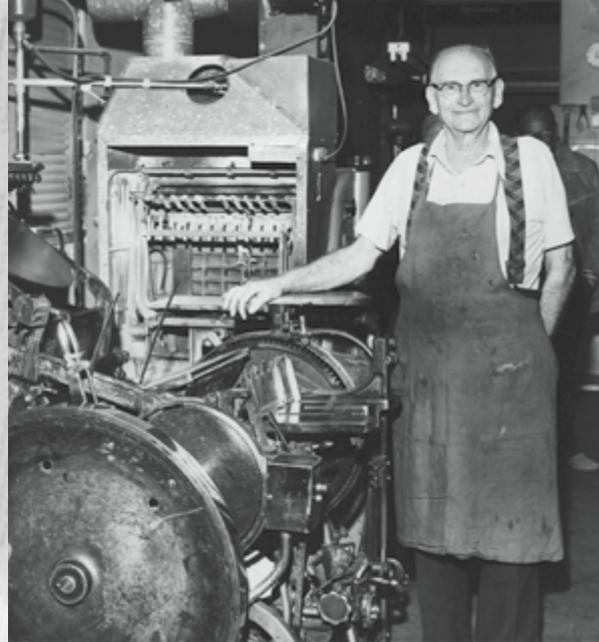
톰은 비둘기를 기르는 데 특별히 흥미를 보였는데, 청소년 시기에 시작된 이 취미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론 신권 정원회 고문이 톰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주었는데, 이 비둘기가 계속해서 그 고문의 집으로 돌아간 탓에 톰은 매주 신권 접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이 일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²⁰ 톰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기초를 마련해 준 사람은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인 루시 게르취라고 말했다. 소란스럽기 짝이 없던 소년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던 게르취 자매의 영으로 가득한 성경 공과를 들으며 제멋대로였던 태도를 바꾸게 되었다.²¹

성인으로 자라나

대공황의 경제적인 압박 탓에 톰은 열두 살의 나이에 부친이 경영하던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해야 했다.²² 그러나 톰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제2차 세계 대전이 대공황 때보다 더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몬슨 회장은 자신의 십 대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젊은이들은 [전쟁]이 계속된다면 자신들도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²³ 역사를 사랑하는 우수한 학생이었던 그는 17세에 유타 대학교에 입학했다.²⁴



토마스 몬슨은
출판업에 종사할 때(위)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전심전력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근무했던
곳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오른쪽)



역사 교사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그 대신 경영학을 공부하며 로웰 베니언 박사와 티 에드거 라이언 박사가 가르치던 종교 교육원 수업도 즐겨 들었다.²⁵

대학에서 그는 평생 사랑할 사람을 만났다. 신학기 무도회에서 프랜시스 존슨을 소개받은 뒤로, 톰은 계속 그녀를 찾아갔다. 후에 그는 떠들썩하던 자신의 가정과 존슨 가를 비교하며, “저는 [그녀의 집]에 흐르던 품위와 조용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회상했다.²⁶ 프랜시스의 부친은 몬슨이라는 이름에 관심을 보이더니, 톰의 종조부인 일라이어스가 스웨덴에서 존슨 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한 사람임을 알게 된 뒤, 눈물을 흘리며 톰을 끌어안았다.²⁷ 톰과 프랜시스는 대규모 악단의 연주를 즐겼으며, 토미 도시나 글렌 밀러 같은 주자들이 연주하는 무도회에 자주 갔다.²⁸

1945년이 되자 톰은 미 해군 예비군에 입대했다. 톰은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신병 훈련소에서 지낸 첫 3주 동안 “저는 제 삶이 위협에 처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해군은 저를 훈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중에도 영적인 경험이 함께했다. 어느 일요일, 선임 하사관이 병사 전원을 정렬시키더니 가톨릭교도와 유대인, 그리고 개신교도들을 집회 장소로 안내한 다음에 톰에게 다가와 물었다. “자네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나?”

나중에 몬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 옆에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몰몬이라고 부릅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²⁹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밤, 맞닿은 막사의 침상에 있던 톰의 후기 성도 친구인 리랜드 메릴이 고통스럽게 신음을 하기 시작했다. 리랜드는 목소리를 낮추고 필사적으로 톰을 불렀다.

“이봐, 몬슨, 너 장로지?” 그러더니 그는 신권 축복을 부탁했다. 그것은 톰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톰은 도움을 구하며 조용히 기도했을 때, “배낭 바닥을 살펴보라.”라는 응답을 받았다. 새벽 두 시에 톰은 배낭 바닥에서 선교사 지침서를 찾았으며 병자를 축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60여 명의 수병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병자 축복을 했습니다. 꺼내 놓은 물건들을 다시 배낭에 집어넣기도 전에 메릴은 어린아이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³⁰ 톰은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게서도 배웠는데, “우리 몰몬 젊은이들이 침상에 누워서 기도할” 때,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한 젊은 가톨릭교 신자를 존경했다.³¹

톰은 일 년을 군에서 복무한 뒤, 집으로 돌아와 교회 소유의 데저렛 뉴스에서 홍보 책임자로 일하면서 유타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졸업하고 몇 달 뒤, 그는 1948년 10월 7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프랜시스 존슨과 결혼했다. 몬슨 자매는 그들의 신혼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상당히 일찍부터 자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³² 주님께서는 거의 즉시 젊은 몬슨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셨다.

개인적인 성역

1950년 5월, 톰과 프랜시스의 감독인 존 알 버트가 스테이크 회장단에 부름받았다. 버트 감독은 자신을 대신하여 감독으로 봉사해야 할 사람을 묻는 말에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스테이크 회장]님께 저를 대신해서 감독을 맡아 줄 사람으로 22살 난 청년이 생각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³³ 이렇게 하여 젊은 토마스 에스 몬슨은



1983년 복음 전파를 위해 아이티를 헌납한 후 몬슨 장로는 예배당 건축 부지를 방문했다.

85명의 미망인이 소속된, 당시에 교회의 복지 사업이 가장 절실하던 템플 뷰 6~7와드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톰은 바로 이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을 베풀고자 하는 강한 본성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그는 성탄절기가 돌아오면 사탕, 책, 통닭구이



새로 설립된 동독 드레스덴 선교부에서 열린 신권 모임을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은 몬슨 장로와 지도자들.

등을 선물로 들고 미망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했다.³⁴ “자신의 미망인들”을 가까이서 살피던 그는 감독직에서 해임된 뒤에도 오랫동안 해마다 그중 여럿을 방문했으며, 총관리 역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85명의 장례식에서 매번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³⁵ 그는 감독으로 봉사했던 5년을 돌아보며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덕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연령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동정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다.³⁶ 그는 종교가 다른 사람을 포함해 자신의 와드 경계 내에 사는 모든 이를 돌보고,

저활동 회원들을 찾았다. 한 청년에게 정원회 모임으로 돌아오라고 격려하기 위해 어느 일요일 아침 그가 일하는 주유소까지 찾아가기도 했다.³⁷

이 특별한 부름은 어려운 교훈도 가르쳐 주었다. 스테이크 지도자 모임에 참석 중이던 몬슨 감독은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보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와드의 연로한 회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공공롭게도 스테이크 회장이 말씀을 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젊은 몬슨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이 말씀을 마칠 때까지 안절부절못하며 자리를 지키다가 말씀이 끝나자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 형제의 병실로 뛰어 들어가려는데 간호사가 그를 멈추게 하고는 “몬슨 감독님이신가요?”하고 물으며 이렇게 전했다. “환자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독님을 불러 달라고 하셨습니다.”³⁸ 그날 밤 몬슨 감독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성신의 음성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 후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 다짐을 되새겼다.

그는 27세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31세 되던 1959년에는 캐나다의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가 이끌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영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며, 어떤 선교사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면 몬슨 회장이 영의 느낌에 따라 그 직전에 그 선교사의 집을 방문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³⁹ 그는 선교사들에게 집중해서 모든 선교사의 이름을 외우고, 선교사들의 문제와 고민에 관해 권고하며, 특히 조기 귀환이나 선도 평의회가 열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 무렵, 몬슨 가족은 식구가 늘어 토마스 리와 앤 프랜시스라는 두 자녀가 있었다. 세 번째



“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고(교리와 성약 107:23) 독일(위)과 남태평양(아래)을 방문한 몬슨 장로.





고든 비 힐클리 회장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을 비롯해 세 분의 교회 회장 보좌로 봉사한 몬슨 회장(위 오른쪽). 몬슨 회장은 열 살에 이 연단에서 처음으로 말씀했다. 2008년부터 제일회장단에서 그의 보좌로 봉사했던 헨리 비 아이어링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자녀인 클라크 스펜서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몬슨 가족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톰은 캐나다를 매우 좋아해서 2010년에 교회 회장으로서는 캐나다 밴쿠버 성전을 헌납할 때 캐나다 국기를 옷가에 달고 개회 찬송 대신 캐나다 국가를 부르게 할 정도였다.⁴⁰

솔트레이크시티의 집으로 돌아온 뒤, 톰은 데저렛 출판사의 부장이 되었고, 프랜시스는 자녀를 양육하고 와드의 부름을 수행하며, 교회 본부 신권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남편을 내조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톰은 성인 협의 위원회, 선교사 위원회, 계보 위원회 등 교회의 여러 위원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집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것은 아마 당시에 자기가 맡은 임무와 얼마쯤 관련이 있는 일 때문이라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맥케이 회장은 제일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은 엔 엘돈 태너 장로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톰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톰은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맥케이 회장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확신을 전했다. “저에게 축복된 재능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사업에 쓰일 것이며 필요하다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입니다.”⁴¹

이 성스러운 부름을 아내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밀에 부치기로 동의한 몬슨 회장은 1963년 10월 4일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대회에 도착한 그는 자신이 봉사하고 있던 신권 가정 복음 위원회의 위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옆자리에 있던 친구인 휴 스미스가 이상한 우연에 관해 이야기했다. 총관리 역원이 부름을 받았던 지난 두 차례의 대회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⁴² 토마스 몬슨의 이름이 호명되자, “휴 스미스는 저를 바라보며 놀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기막힌 우연이 세 번이나 일어난다니.’ 청중석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나가던 그 길이 제 생애에서 가장 긴 길이였을 것입니다.”⁴³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의 봉사

36세에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이 된 토마스 에스 몬슨은 1910년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33세로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은 이래 최연소 십이사도가 되었다. 그는 1963년부터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을 도와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1985년까지 22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으며, 이에 겸하여 교회의 모든 주요 위원회에서 봉사했고, 그중 여러 차례 의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⁴⁴ 이 기간 동안 교회 회원은 미국 서부를 기점으로 전 세계의 매우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⁴⁵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서 사도로 부름받은 그는 계속하여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 아래 봉사했고, 1972년부터 1973년까지는 해롤드 비 리 회장 아래 봉사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이 재임하던 1973년부터 1985년까지 몬슨 회장이 이끌던 경전 출판 위원회는 1979년에 경전 안내서와 성경 사전 및 새로운 각주 방식이 들어간 2,400쪽 분량의 흥정역 성경을 출판하였다. 몬슨 회장은 킴볼 회장과 함께 합당한 남성 회원은 모두 신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념비적인 계시를 받기도 했다.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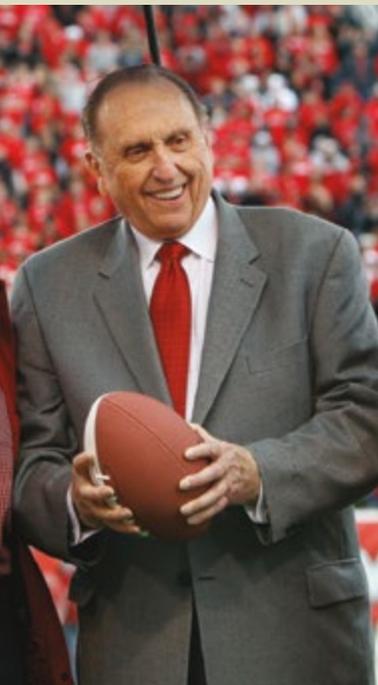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후 철의 장막 너머에 갇힌 교회 회원들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몬슨 회장이 행한 가장 커다란 업적은 동유럽의 성도들을 돌본 일이었다. 독일 출신의 제일회장단 일원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몬슨 회장님이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가져다주신 축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하며 가치 면에서도 매우 뛰어나서, 저는 참으로 주님께서 몬슨 회장님을 독일의

연차 대회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몬슨 회장.





성전 초석에
회반축철을 한 몬슨
회장과 한 소녀.(위)
모교에서 풋볼공을
손에 든 몬슨
회장.(아래)



역사를 바꿀 도구로서 예비하셨다고 믿습니다.”⁴⁷ 독일 민주 공화국의 공산주의 정부는 종교적인 의식을 극심히 탄압했으나, 교회 회원들은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직장과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잦은 감시를 당하면서도 충실함을 잃지 않았다. 몬슨 회장은 그들을 자주 방문했으며, 한번은 동독으로 넘어가서 교회 지침서 모두를 다시 타이핑하겠다는 의도로 교회 지침서를 공부한 적이 있었다. 동독에는 교회 자료를 가져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부 회장실로 들어가서 이 작업을 시작했는데, 여러 쪽을 마친 뒤 주변을 살피다가 뒤편의 책장에서 지침서 한 권을 발견했다.⁴⁸ 몬슨 회장은 소수의 성도들이라도 연차 대회에 참석하고 국외에 있는 성전을 방문할 수 있도록 설 새 없이 동독의 관료들을 설득했으나 동독의 성도들은 전 세계의 다른 회원들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기회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8년에 김볼 회장은 몬슨 회장에게 “주님께서는 합당한 [동독의] 회원들에게 성전 축복을 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한 뒤, 빙그레 웃으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덧붙였다.⁴⁹ 몬슨 회장과 동독의 교회 지도자인 헨리 버크하트는 한 번에 여섯 쌍이 스위스 성전을 방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하여 정부에 청원하던 중에 정부 지도자에게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 건 어떻습니까?” 1982년 10월, 제일회장단은 독일 민주 공화국의 프라이베르크에 공산주의 국가 최초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일이었다. 이와 더불어 일어난 놀라운 일은 후에 몬슨 회장과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 그리고 동독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관료 및 국가 원수인 에리히 호네커와 기적적인 협약을 맺어 동독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에 나온 것이었다.⁵⁰ 몬슨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하와이 라이에에서 열린 축하 문화 행사에서 몬슨 회장이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자 청소년들이 기뻐하고 있다.

한때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국가에 있는 교회의 회원들을 돌보는 일에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 산 증인입니다.”⁵¹

그러나 몬슨 회장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관리 역원으로서 막중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성신의 속삭임과 개개인에게 손을 내미는 일에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며 봉사했다. 몬슨 회장은 보훈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을 베푼 뒤에, “교회 본부에서 일주일 내내 모임에 참석할 때보다 더 큰 일을 해냈다”고 느꼈다.⁵² 그가 자신을 기다리는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방문하고자 총관리

역원의 임무에서 물리나 병실과 양로원, 사택의 침상을 찾았던 이야기들은 넘쳐나게 많다.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에 사는 시한부 선고 받은 한 소녀가 몬슨 회장에게 축복을 부탁했으나, 그는 빠듯한 스테이크 모임 일정 탓에 소녀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 열린 스테이크 지도자 모임 중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소녀를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영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마가복음 10:14)라는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⁵³ 몬슨 회장은 이튿날 아침에 크리스털 메스빈의 집까지 130킬로미터를 이동하여 영으로 가득한 집에서 소녀를 축복했다. 그리고 크리스털은 나흘 뒤 세상을 떠났다.



2005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05년 '47 개척자의 날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몬슨 회장과 아내 프랜시스.

동독의 빈곤한 회원들을 만날 때면, 몬슨 회장은 자신의 양복과 신발, 계산기는 물론 읽은 표시가 된 경전까지도 나눠 주곤 했다.⁵⁴ 또한 그는 6~7와드의 회원들을 절대 잊지 않았고, 에드 에릭슨처럼 연로하고 빈곤한 벗들을 돌봤다. 에드 에릭슨을 자신의 가족 모임에 초대하고, 그의 생일 축하 모임을 시작한 몬슨 회장은 2009년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자제할 용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랑받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해 줄 용기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⁵⁵

정직하고 친절하 몬슨 회장 덕분에 교회는 다양한 종교와 시민 단체 및 지역 지도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그들을 향한 선의를 싹 틔울 수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웃들 사이에서 성장했으며, 종교가 다른 친척들에게

친밀감을 느꼈던 몬슨 회장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했다. “어디에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⁵⁶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좋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그들 모두 공동체 정신과 시민 의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⁵⁷ 가톨릭 신자이자 솔트레이크

트리분의 전 발행인과 같은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톰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만일 톰 몬슨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친구입니다. ... 교회는 톰 몬슨을 제일회장단 일원으로 부름으로써 우정으로 이 지역 사회를 특별히 단합시켰습니다.”⁵⁸ 솔트레이크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후기 성도 교회가 비영리계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는지를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몬슨 회장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⁵⁹ 다른 종교의

한 지도자는 몬슨 회장에게 이러한

글을 보냈다. “회장님은 항상 구세군의 필요 사항과 요청 사항을 들어주시고자 마음을 열어 두고 계십니다. 회장님과 회장님 교회의 사람들의 온정과 은혜의 정신에 저희는 놀랐습니다.”⁶⁰ 몬슨 회장은 1993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매들린 대성당 재건 및 헌납식 부대 행사에 참석하여 연설했으며 가까운 벗들의 가톨릭 장례식에서도 조사를 전했다.⁶¹

몬슨 회장은 비둘기 기르기와 같은 취미 덕분에 의무라는 무게를 잊고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으며, 손주들은 몬슨 회장을 “비둘기 할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다. 비둘기 기르기에 대한 몬슨 회장의 열정은 그가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수여하는 비둘기 기르기 공훈 배지를 받은 것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1969년에 전미 스카우트 상임 이사회에서 봉사하기



위: 몬슨 회장은 보이 스카우트 잼버리 및 다른 모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유산과 책임을 일깨워 주었다.

시작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실버 비버상(Silver Beaver Award, 봉사상의 일종—웁긴 이), 실버 버팔로상(Silver Buffalo Award, 국가에 두드러진 봉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봉사상—웁긴 이)을 수상했고, 1993년에는 국제 스카우트 연맹에서 수여하는 최고상인 브론즈 울프상(Bronze Wolf)을 수상했다. 그러나 스카우트 이사회의 전임 의장인 로이 윌리엄스는 몬슨 회장이 비둘기 기르기 공훈 배지 수여를 중지하기로 한 스카우트 연맹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⁶²

몬슨 회장은 다방면에 흥미가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봉사하며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다른 곳을 방문할 때면 군인들의 묘역을 즐겨 찾았다. 묘역은 “산산이 부서진 꿈과 이루지 못한 소망과 비탄에 젖은 마음,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낫에 베여 끊어진 삶”에 대한 상념에 짓게 하는 신성한 장소라고 그는 말했다.⁶³ 몬슨 회장은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다른 한편 밤이면 텔레비전에서 재방영하는 페리 메이슨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기도 했다. 간혹 잠이 들어 끝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다.⁶⁴ 그는 뮤지컬도 즐겼다.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내 프랜시스 말 대로라면 저는 ‘쇼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⁶⁵ 사람들과 함께 새해 첫날에 벌어지는 미식축구



미국 보이 스카우트에서 수십 년간 봉사를 펼친 공로로 몬슨 회장은 스카우트에서 수여하는 최고상을 받았고, 그의 이름을 딴 건물도 지어졌다.





필리핀 세부시티 성전
정초식에서 몬슨
회장의 피아노 연주를
즐겁게 듣고 있는
필리핀 회원들.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던 그는 “두 팀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경기를 보기 시작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팀을 고르게 됩니다.”라고 말했다.⁶⁶ 그는 비행기 옆 좌석에 앉은 사람과 비행 내내 닭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1989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보이스카우트 조찬 기도회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 중에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페니얼[영국 사냥개의 일종—옴긴 이]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했다.⁶⁷

물론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족이었다. 그의 가족은 여덟 명의 손주와 열두 명의 증손주로 구성원이 늘어났다. 몬슨 회장이 집에서 지낸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게임, 낚시, 오리 사냥, 정원 풀 뽑기, 영화 보러 가기, 수영, 썰매 타기 등을 한 것들을 기억한다.⁶⁸ 몬슨 회장의 아들 톰에게는 두 가지 각별한 기억이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체커 게임을 하던 것과 기초 군사 훈련 중에 폐렴에 걸린 자신을 축복하기 위해 아버지가 켄터키주 루이빌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것이다.⁶⁹ 딸인 앤은 일요일 저녁이면 교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좋아했다. 클라크는 아버지가 차를 돌려, 가던 길에서 65킬로미터나 떨어진 유타 랜돌프 근처까지 가서 매 둥지를 보게 했던 날을 특별하게 기억한다.⁷⁰ 몬슨 회장은 잔디 깎는 일을 좋아했으며, 집 지하실에서 벌이는 가족 탁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즐겼다.⁷¹

제일회장단의 일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2년 동안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했다. 1985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의 제2보좌로 처음 부름받아서

1994년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때까지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또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 자신을 제1보좌로 부른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곁에서 봉사했다.⁷² 몬슨 회장은 제일회장단 재임 시절에 교회 관리 부서에서 쌓았던 다양한 이력을 활용했으며 업무량이 많아 사무실을 떠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을 다녔던 회장이었으며, 이 관리 업무는 극도로 분주한 일이었다. 소규모 성전으로 성전 건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수천 명의 회원들이 연차 대회 및 다른 행사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형 컨퍼런스 센터가 건립되었고, 위성 방송을 통해 전 세계 훈련 모임이 시작되었으며, 유타 대학교의 라이스-에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하의 날에는 솔트레이크밸리와 와이오밍에서 온 42,000명의 청소년이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을 펼쳤다.⁷³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물몬 태버네클 합창단 공연에서 중간 휴식 시간에 사진을 찍고 있는 몬슨 회장.

그러나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말처럼, 몬슨 회장은 “사람을 앞에 두고 바쁜 적은 없었다.”⁷⁴ 2000년 겨울, 그는 아내와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잠시 중단했다. 프랜시스가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 몬슨 회장은 여러 주 동안 아내의 병실을 지키며 업무를 보았고 마침내 의식이 돌아온 프랜시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이번 분기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깜빡했어요.”였다고 한다.⁷⁵ 그는 처치 뉴스의 기자인 게리 아반트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몬슨 회장의 방문 기사를 자주 작성했던 게리 아반트에게 한번은 몬슨 회장이 “일을 열심히 한다”며 자신들과 함께 관광하자고 권하기도 했다.⁷⁶

교회 회장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2008년 1월 27일에 서거했다.

제일회장단이 해체되고 몬슨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돌아왔다. 철로 근처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에는 짓궂은 장난을 꾸미곤 했고, 대공황기 때조차도 변변찮은 것이나마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던 그 사람이 곧 전 세계 수백만 후기 성도의 지도자가 될 터였다. 그는 2008년 4월 연차 대회 중에 열린 성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만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살면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저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부름받았던 곳이나 부름받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 아니라 부름받은 곳에서 봉사하자. 부름받은 곳에서 봉사해야 한다.’”⁷⁷

2008년 2월 3일 월요일에 교회의 제16대 회장으로 성별되고 성임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1보좌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을 지명했다.

제2보좌로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독일 출신 개종자로 2004년부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을 지명했다. 새로운 제일회장단은 확장하는 교회의 범세계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⁷⁸ 2008년 2월 4일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몬슨 회장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회원들에게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형제애 정신으로 전 세계 있는 선한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밉니다.”⁷⁹

이러한 인류애와 타인에게 내미는 손길은 몬슨 회장의 교회 운영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인도주의 사업 및 도덕적 대의 수호를 위해 가톨릭, 복음주의 기독교, 여타 종교 및 지역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교회 대학에서

연설하도록 부탁했고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⁸⁰ 또한,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직원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봉사하며 지역 사회를 구축하도록 격려했으며, 전 세계 이재민 및 난민들의 막대한



2008년 기자 회견에서 제일회장단 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왼쪽)과 디이터 에프 후르트도르프(오른쪽)과 함께한 몬슨 회장.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다른 기관들과 인도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몬슨 회장의 재임 첫 5년 동안, 교회는 아이티의 지진과 일본의 쓰나미, 태국의 홍수 여파 속에서 구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오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국제적인 식량난을 완화하며 미국 내에서 재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등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면역력 증강에도 힘을 보탰다. Slate.com은 교회의 이러한 국제적인 구호 활동과 영향력을 인정하여 2009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80세 이상의 80인 가운데 몬슨 회장을 1위로 선정하였다.⁸¹

한편, 몬슨 회장의 지도 아래,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후기 성도들에 대해 더 널리 알리려는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저는 몰론입니다” 캠페인은 할리 데이비슨, 미국 의회 도서관, 록 밴드 등 다양한 조직에서 일하는 후기 성도의 모습을 담아냈다. 교회 본부는 청소년과 일반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교회 소유의 BYU TV 채널 및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교회 웹사이트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감상할 수 있도록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담은 여러 편의 고화질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른 온라인 자료에는 복잡한 사안들을 명확하고 학술적으로 다루고자 고안되어 수록된 여러 복음 주제 글이 있고, 동성애자인 후기 성도와 그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및 관련 교회 가르침을 제공하는 몰론과 동성애자 웹사이트도 있다.

그러나 몬슨 회장 재임기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역사적으로도 놀라울 만큼 관리 방식이 발전된 일일 것이다. 이 중대한 변화는 교회가 인도하고, 기능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2009년에 복지 원리를 다루는 DVD와 팸플릿을 배부했으며, 2010년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할 새로운 지침서를 발행했고, 그와 함께 전 세계에 두 차례의 훈련 모임을 방송했다. 새로운 지침서에서는 개방적이고 진솔한 토론을 통해 평의회에서 일하는 것과 위임을 통해 감독의 부담을 더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이끄는 전 세계 훈련 모임에 인도주의 봉사, 복지 필요 사항, 선교 사업, 성전 사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신권 지도자 대회 및 지역

지역 행사에서나,
교회 행사에서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 때에나 몬슨
회장은 언제나
미소를 보이며
격려했다.



검토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몬슨 회장의 지도 아래 가장 극적으로 발전한 일 중 하나는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지침으로, 이때 몬슨 회장은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9세가 되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유례없이 선교사 연령 제한을 낮춤으로써 선교 정책에 변화가 생기자 선교 사업에 대한 열의가 번졌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남성과 특히 여성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선교사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과 새로운 선교부가 문을 열었고, 2014년 말 선교사 수는 85,000명에 달했다. 회원들도 선교 사업을 위해 가정에서 자녀들을 더욱 잘 준비시키고 지역의 선교사 프로그램에 더욱 온전히 참여하며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동참했다.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변경된다는 발표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 더해

지도자 격인 자매 선교사를 뜻하는 “자매 훈련 지도자”가 생겼고, 기술 및 온라인을 활용한 전도도 시작되었다.

젊은 여성들이 더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은 몬슨 회장 재임기에 여성들을 지도자의 역할 및 의사 결정, 그리고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에 더 깊이 관여하게 하려는 지속적인 노력과 꼭 들어맞았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 특히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와 1830년부터 현재까지의 회복의 기간에, 복음에서 자매들이 맡았던 막중한 역할을 후기 성도 여성과 남성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는 내 왕국의 딸들을 출판해 가정, 상호부조회, 청년 및 여러 정원회에서 이 책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2014년에는 상호부조회 총회와 청년 총회를 대체하는 연차 대회 여성 총회가 시작되었으며, 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이 모임의 참여 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을 온전히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상호 작용 교수법이 또한 몬슨 회장의 행정 혁신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돌이키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축복하고자”⁸² 2013년에 도입한 청소년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는 교사와 청소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했다. 이 교과 과정은 온라인 자료와 청소년들의 참여, 그리고 영으로 인도되는 토론을 활용하여 신앙을 기르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이끌었다. 교회 내 모든 가르침을 향상하고자 하는 비슷한 노력으로 2016년에 새 자료인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과 와드 월레 교사 평의회 모임*이 도입되었다.

몬슨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전 세계에 건축될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었다. 몬슨 회장은 필리핀 세부, 브라질 쿠리치바,

우크라이나 키예프, 파나마 파나마시티, 미주리 캔자스시티 등을 포함해서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성전 헌납식과 재헌납식에 참석했다. 2013년에 회원들이 조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온라인 자료가 소개되자, 회원들이 성전 의식을 위해 제출하는 가족 이름이 11퍼센트 증가했으며, 2013년은 “성공적인 가족 역사의 해”로 불렸다.⁸³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토마스 몬슨이라는 교회 지도자는 아무리 시간이 빠듯해도 “평사원의 장례식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나타나는 사람이었는데, 개인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몬슨 회장의 성역을 더 잘 설명할 말은 없을 것이다.”⁸⁴라고 말했다.

2013년 5월 23일, 몬슨 회장은 5월 17일에 솔트레이크 병원에서 생을 마감한 사랑하는 아내 프랜시스에 장례식을 감리했다. 그는 장례식에서 “아내는 결혼하던 그날부터 저를



몬슨 회장과 몬슨 자매는 2008년에 결혼 60주년을 맞이했다

지시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아내를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 칭했다.⁸⁵ 몬슨 회장은 아내 없이 회장 재임을 마쳤고 특별한 행사에는 딸인 앤을 동반하기도 했다.

몬슨 회장이 재임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안식일을 더욱 온전히 준수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는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2015년부터 교회의 모든 조직과 가정에서는 회원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맺은 성약에 집중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사야 58:13)로 만들어 충실한 사람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통합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

몬슨 회장은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늘 염두에 두었으며 절대로 그들을 왕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20년 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던 한 노인이 교회로 돌아오는 문제를 두고 조언을 구하려고 한 총관리 역원을 찾아왔을 때, 그는 교회로 돌아오겠다는 자신의 소망에 불을 지핀 편지를 꺼내 들었다. “형제님은 충분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올 시간이에요, 톱 드림.”⁸⁶ 몬슨 회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성도가 될 자질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⁸⁷

교회의 회장으로서도 몬슨 회장은 다른 이들과 우의가 돈독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톱 페리 장로는 이렇게 전했다. “그분을 만나면, BYU 경기나 유타 재즈[유타주가 연고지인 농구팀-울긴 이]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대단한 스포츠 팬이시거든요. 그러고는 업무 이야기를 시작하실 겁니다.”⁸⁸ 또한, 몬슨 회장은 항상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몬슨 회장은 2009년 몰몬 태버나클 합창단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대형 오르간 앞에 앉아 초보자용 피아노 교본에 나오는 “To a Birthday Party”를 연주했다.⁸⁹ 2013년, 교회는 “스카우트 100주년”을 기념하며 일평생 스카우트를 지원한 몬슨 회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스카우트 활동은 몬슨 회장의 여러 관심사 중 하나로서 끊임없이 자신과 친구들을 이어 주는 일이었으며, 친구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해 주기를 좋아했던 몬슨 회장은 종교와 관계없이 스카우트에 몸담은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권고했다.

몬슨 회장은 1997년 인터뷰에서, “주님께서 팔꿈치로 슬쩍 찌르시는 듯한 느낌, 바로 영의 속삭임”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에 있는 아버지를 문병 갔다가 다음 모임에 참석하려고 서두르던 중인데도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그런 경우였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어머니를 축복해 달라는 한 가족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날 늦게, 몬슨 회장은 그가 축복한 뒤 그 가족들 모두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평화롭게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에 그 어머니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다.⁹⁰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인 덕분에 제 인생에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몬슨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는 회자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놀라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다음 말씀은 몬슨 회장에게 반영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자, 가서 나를 위해 이를 행하거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분께 감사드립니다.”⁹¹

몬슨 회장은 언제나 변함없이 세상에 이렇게 증언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의 간절함으로, 저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연차 대회 모임을 마치고 나서는 몬슨 회장 부부와 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소리 높여 간증드리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주이시며,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아, 이 말은 얼마나 따뜻한 기쁨을 전해 줍니까!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지식에 따라 생활할 수 있기를 ... 간구합니다."⁹² ■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기뻐하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92쪽.
 2. 그레고리 파킨 박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2008년 9월 2일.
 3. "A Life Guided by Service", *Deseret News*, general conference special supplement, Apr. 1, 2008, 4; 또한 제프리 알 홀런드, "주의 심부름꾼 토마스 에스 몬슨", *성도의 벗*, 1986년, 10월호, 17쪽 참조.
 4. 아들 Tom Monson이 Joshua Perkey에게 보낸 이메일, *Church Magazines*, Feb. 19, 2008.
 5.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 The Biography of Thomas S. Monson* (2010), 518.
 6. Gerry Avant, "President's Heartfelt Efforts Universal", *Deseret News*, Feb. 7, 2008, M6.
 7. "A Life Guided by Service", 4.
 8. "Speaking from Experience", *Deseret News*, Feb. 7, 2008, M4.
 9. Carrie A. Moore, "LDS Leader Has Fond Memories of Growing Up in the S.L. Area," *Deseret News*, Feb. 5, 2008, M3.
 10. Gerry Avant, "On Lord's Errand since His Boyhood", *Church News*, Feb. 9, 2008, 5.
 11. 이 글에 나오는 대부분의 일대기 정보는 스윈튼의 *To the Rescue*에서 발췌했다.
 12. Swinton, *To the Rescue*, 50, -51 참조.
 13. Heidi S. Swinton, "Baseballs and Service," *Friend*, Sept. 2012, 2 참조.
 14. Swinton, *To the Rescue*, 35 참조.
 15. 제프리 알 홀런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리아호나*, 2008년 6월호, 특별 부록 8쪽.
 16. "In His Own Words", *Deseret News*, 연차 대회 특별 부록, Apr. 1, 2008, 7.
 17. Swinton, *To the Rescue*, 58 참조.
 18. 토마스 에스 몬슨,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89~90쪽.
 19. Moore, "LDS Leader Has Fond Memories", M3 참조; "A Life Guided by Service", 5.
 20. Swinton, *To the Rescue*, 74~75 참조.
 21. Swinton, *To the Rescue*, 63~65 참조.
 22. Swinton, *To the Rescue*, 78 참조.
 23. Moore, "LDS Leader Has Fond Memories", M3.
 24. Swinton, *To the Rescue*, 79, 87 참조.
 25. Swinton, *To the Rescue*, 89, 288 참조.
 26. Moore, "LDS Leader Has Fond Memories", M3.
 27. Swinton, *To the Rescue*, 90 참조.
 28. Swinton, *To the Rescue*, 92 참조.
 29.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1쪽.
 30. "Speaking from Experience", M5.
 31. Swinton, *To the Rescue*, 99.
 32. Moore, "LDS Leader Has Fond Memories", M3.
 33. "A Life Guided by Service", 5.
 34. Swinton, *To the Rescue*, 144 참조.
 35. Swinton, *To the Rescue*, 142 참조.
 36. Swinton, *To the Rescue*, 132.
 37. Swinton, *To the Rescue*, 158~159 참조.
 38. Swinton, *To the Rescue*, 135~136 참조.
 39. Gary Bell, "Recollecting", *Deseret News*, Feb. 5, 2008, M3 참조.
 40. Swinton, *To the Rescue*, 175~176 참조.
 41. Swinton, *To the Rescue*, 216.
 42. Swinton, *To the Rescue*, 217~218 참조.
 43. "In His Own Words", 17.
 44. Swinton, *To the Rescue*, 252 참조.
 45. Swinton, *To the Rescue*, 224 참조.
 46. Swinton, *To the Rescue*, 530~532 참조.
 47. Swinton, *To the Rescue*, 279.
 48. Swinton, *To the Rescue*, 2⁹³~294 참조.
 49. Swinton, *To the Rescue*, 309.
 50. Swinton, *To the Rescue*, 309, 313, 333~334 참조.
 51. Swinton, *To the Rescue*, 340.
 52. Swinton, *To the Rescue*, 405.
 53. 제프리 알 홀런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11쪽.
 54. Swinton, *To the Rescue*, 316 참조.
 55. Swinton, *To the Rescue*, 248.
 56. Swinton, *To the Rescue*, 464.
 57. Swinton, *To the Rescue*, 401.
 58. John W. Gallivan, in Jeffrey R. Holland, "Man of Action, Man of Faith", 15.
 59. Pamela Atkinson, "Recollecting", M3.
 60. Swinton, *To the Rescue*, 440.
 61. Swinton, *To the Rescue*, 402~403, 453 참조.
 62. Joseph F. Dougherty, "LDS Leader Also Lifelong Scouter", *Deseret News*, Feb. 7, 2008, M6 참조.
 63. "In His Own Words", 20.
 64. Ann Dibb, Joshua Perkey에게 보낸 이메일, *Church Magazines*, Feb. 13, 2008.
 65.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8쪽.
 66. Swinton, *To the Rescue*, 452.
 67. Swinton, *To the Rescue*, 463~464, 453 참조.
 68. Swinton, *To the Rescue*, 200.
 69. Jeffrey R. Holland, "Man of Action, Man of Faith", 16~17 참조.
 70. Jeffrey R. Holland, "Man of Action, Man of Faith", 17 참조.
 71. Swinton, *To the Rescue*, 265 참조.
 72. Swinton, *To the Rescue*, 532~33 참조.
 73. Swinton, *To the Rescue*, 471, 472, 478, 484, 485 참조.
 74. Swinton, *To the Rescue*, 485.
 75. Swinton, *To the Rescue*, 492.
 76. Swinton, *To the Rescue*, 487.
 77. Gerry Avant, "Church President to Be Sustained in Solemn Assembly", *Church News*, Apr. 5, 2008, 3~4; 또한 lds.org/church/news/oct-4-is-president-monsons-50-year-anniversary-as-apostle 참조.
 78. Swinton, *To the Rescue*, 496 참조.
 79. Thomas S. Monson, "The Lord's Work", *Church News*, Feb. 9, 2008, 3.
 80. "교회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내보내다", mormonnewsroom.org/article/religious-freedom-resources 참조.
 81. Swinton, *To the Rescue*, 515.
 82. 제일회장단 서신, 2012년 9월 12일.
 83. Paul G. Nauta, "2013 Was a Banner Year for Family History[2013년, 성공적인 가족 역사의 해]", lds.org/church/news/2013-was-a-banner-year-for-family-history.
 84. Swinton, *To the Rescue*, 502.
 85. Gerry Avant, "Sister Frances J. Monson Was 'the Ideal Wife and Mother,[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 프랜시스 제이 몬슨 자매]", lds.org/church/news/sister-frances-j-monson-was-the-ideal-wife-and-mother.
 86. Swinton, *To the Rescue*, 504.
 87. Swinton, *To the Rescue*, 504.
 88. Swinton, *To the Rescue*, 512.
 89. Swinton, *To the Rescue*, 515 참조.
 90. Gerry Avant, "Oct. 4 Is President Monson's 50-Year Anniversary as Apostle[10월 4일에 사도로서 50주년을 맞이하는 몬슨 회장]", lds.org/church/news/oct-4-is-president-monsons-50-year-anniversary-as-apostle.
 91. Gerry Avant, "Oct. 4 Is President Monson's 50-Year Anniversary as Apostle[10월 4일에 사도로서 50주년을 맞이하는 몬슨 회장]", lds.org/church/news/oct-4-is-president-monsons-50-year-anniversary-as-apostle.
 92. 토마스 에스 몬슨, "내 구주 살아 계시다!"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5쪽)

추도식

故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일반 공개 조문이 2018년 1월 11일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아래). 장례식은 다음날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고, 그날 오후 솔트레이크시티 묘지에서 비공개 매장식이 있었다.





사랑과 봉사의 유산

앤 엠 덩
몬슨 회장의 딸

오 늘 여러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6대 회장이며 저의 아버지이신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님을 추모하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 센터에는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은 봉사와 보살핌을 통해 아버지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수많은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총관리 직원들과 교회 부부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경호팀, 특히 트레이시 몬슨과 맨 스티븐스는 프로 정신과 배려심으로 훌륭하게

일해 주셨습니다. 간호팀 여러분, 특히 얼리스 워커 자매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내과 전문의이신 러셀 맥스웰 박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봐 주셨던 물리치료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변함없는 자애와 보살핌을 보여 주셨습니다.

남편인 로저와 제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장인 어른이자 할아버지이기도 했던 제 아버지를 보살피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헌신적이셨던 어머니께서 부탁하신 대로 아버지를 곁에서 돌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성스러운 축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 주”셨음을 압니다.¹

마지막으로 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4년간 아버지께서 사도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동안 여러분께서 매일 해 주신 기도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그분이 만들어 내신 사랑과 봉사의 유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버지는 선지자이셨지만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의지하셨고 그분과 같이 되려 노력하셨습니다. 일 년 전쯤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리아호나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좀 아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의 유산

몬슨 회장님은 그저 “최선을 다함”으로써 잊지



못할 사랑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친척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충실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였던 영원한 동반자인 아내 프랜시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을 사랑하셨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동부 캐나다 선교부 선교사들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특히 손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손주들과 수많은 추억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그들 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본 사람들도 몬슨 회장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는 지역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남자분과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수줍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 제게 악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포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주저 없이 몸을 굽히셔서 다정하게 그분을

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구주의 위대한 계명을 암송하시곤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²



그리고 매일매일 이 계명대로 사셨습니다.

봉사의 유산

베로나의 두 신사란 작품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을 보여 주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³ 아버지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고 구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⁴ 아버지는 평생을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치셨습니다.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다니실 때 제가 자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평생 친구인 98세의 글렌 러드 장로님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언젠가 장로님을 한동안 방문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비서 한 분이 러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아프거나 고통받거나 연로한 사람들을 방문하러



몬슨 회장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노란 장미를 꽂은 가족들이 그를 기리고 있다.

나가셨나요? 그렇다면 저도 방문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바로 장로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장로님 댁에 다녀온 후에 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앤,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을 좀 한 것 같구나.”

아버지는 막중한 책무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가 힘에 부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협조를 얻어 아버지 대신 필요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맥 맞나? 나 톰이야. 오늘 자네 영혼에 환한 점 하나 찍지 않겠나?” 이 말을 해석하자면 몬슨 회장이 “봉사 부탁”을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맥”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교회 회장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살피고 “우리 영혼에 환한 점 하나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주 떠오르는 느낌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르므로써 우리의 간단한 봉사가 누군가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이 유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 년 전쯤에 아버지와 저는 또 다른 오랜 친구 한 분을 방문했는데 그분은 연세가 94세였고 병세가 위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자네, 내 친구 브렌트 고우츠 맞나?”라고 하셨습니다. 고우츠 형제님은 눈을 뜨시더니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툼, 와 주었구먼. 잘 왔네. 잘 왔어.”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브렌트, 나는 지금 세상 어디보다도 바로 자네 곁에 있고 싶네. 주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기를 바라실 걸세.” 두 분은 마치 고우츠 형제님이 활기차고 유능한 청년이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이야기를 나누셨고 아버지는 형제님께 신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리를 떠나 차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단다. 내 친구를 만나보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을 좀 한 것 같구나, 앤.”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휘파람도 부셨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진정한 기쁨을 얻는 방법을 알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터득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러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오늘 좋은 일을 좀 한 것 같아.”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선지자이신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예롭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참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토마스 스펜서 몬슨 회장을 사랑하고 존경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주님의 선지자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모범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 아버지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⁵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88.
2. 마태복음 22:37~39.
3. The Two Gentlemen of Verona, in The Complete Works of William Shakespeare, ed. William Aldis Wright, Cambridge edition (1936), act 1, scene 2, line 31.
4. 사도행전 10:38.
5. 마태복음 25:21.

우리 시대의 선지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 나님의 선지자이자 저의 소중한 친구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 헌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영광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로의 시간을 맞아 마음과 생각은 절로 숙연해지며, 제 사랑과 감사와 슬픔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해리엇과 저는 회장님의 가족과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분, 그리고 그분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셨던 많은 분께 심심한 조의와 애도와 감사를 표합니다. 몬슨 회장님의 따님인 앤 몬슨 딥 자매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신 프랜시스 자매님이 작고하신 이후 몬슨 회장님의 생애 외롭고 추운 겨울날이 찾아왔지만, 그 시간 동안 앤이 보여 준 헌신적인 봉사와 그녀의 형제자매 및 가족이 보내 준 지지는 몬슨 회장님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를 친구로 여겼습니다. 비록 먼 곳에서 그를 알았거나, 그의 말씀을 들었거나, 그를 바라보았던 이들일지라도 모두가 그분을 친구로 여겼으리라 믿습니다.

우흐트도르프 자매와 제가 세계 곳곳을 여행할 때면,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도를 전했습니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모든 이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은 도덕적 신념을 굳게 지키는 분이였으며, 진정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사랑, 비전, 간증, 용기, 그리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던 그분은 결코 위에서 군림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인도하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 한편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와 견실함, 주에 대한



확신, 미소, 재치, 열정, 낙천적인 모습, 그리고 그분이 나누신 일화들이 무척이나 그리울 것입니다. 저는 그 일화들을 현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비유로 여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몬슨 회장님께서 해리엇과 저를 사무실로 불러 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해리엇 자매와 저는 그 순간이 갖는 의미와 저희 삶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당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몬슨 회장님의 온정과 개인적인 관심, 격려, 일을 향한 열정, 선지자적인 위엄으로 인해

저희는 안정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주를 알고 있으며,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과 독일인들은 몬슨 회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강한 신앙 덕분에 우리는 냉전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독에 있는 회원들을 위한 옷과 물건으로 가방을 가득 채워 오셨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1975년에 사도로서 올린 강력한 기도는 이루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러셀 엠 넬슨 장로님과 함께 방문하신 몬슨 회장님은 이 신성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되짚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은 차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이 지닌 신앙과 이루려는 사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해리엇과 제가 몬슨 회장님과 함께 함부르크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던 중에, 그분은 스테이크 회장과 축복사로 봉사하셨던 독일 교회의 충직한 개척자 중 한 분이신 마이클 패니취 형제님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패니취 형제님은

그분께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분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져누우신 형제님에게 다가간 몬슨 회장님은 훌륭한 신권 축복을 주셨고, 그 형제님이 생애 전반에 걸쳐 행한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며 미소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다음 구절이 생각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니라.”¹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을 방문한 후 자리를 뜨려는데, 그분이 저희를 멈추게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누는 이 간증은 얼마나 부드럽고도 강력합니까!

몬슨 회장님은 우리 시대를 위한 참된 선지자였으며,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셨고, 재능을 발휘하셨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에 관해 알고 있고 사랑하는 모든 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그분께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갔습니다.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들이 일어나 몬슨 회장의 관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옮겨지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

위독한 상태로 병석에 누워 있어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를 방문하길 원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대회에 참석하기 직전에 발 수술을 받으셨던 터라 매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패니취 형제님은 5층에 사셨는데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조차 없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몬슨 회장님은 가야 한다며 고집하셨고 우리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지하는, 우리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친구이신 토마스 스펜서 몬슨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이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회장단에서 몬슨 회장님의 보좌 중 한 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경험은 그 무엇보다도 큰 만족과 영적인 보상을 저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선지자의 행복과 마음의 고통, 웃음과 슬픔, 깊은 대화, 그리고 수많은 영감 어린 순간들과 저는 함께했습니다.

최근에 아이어링 회장님과 제가 몬슨 회장님

이 아름다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이 소중한 친구의 일부는 언제나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께 애정 어린 작별을 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길 것입니다. 우리 구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사도행전 10:38

사려 깊고 용감했던 선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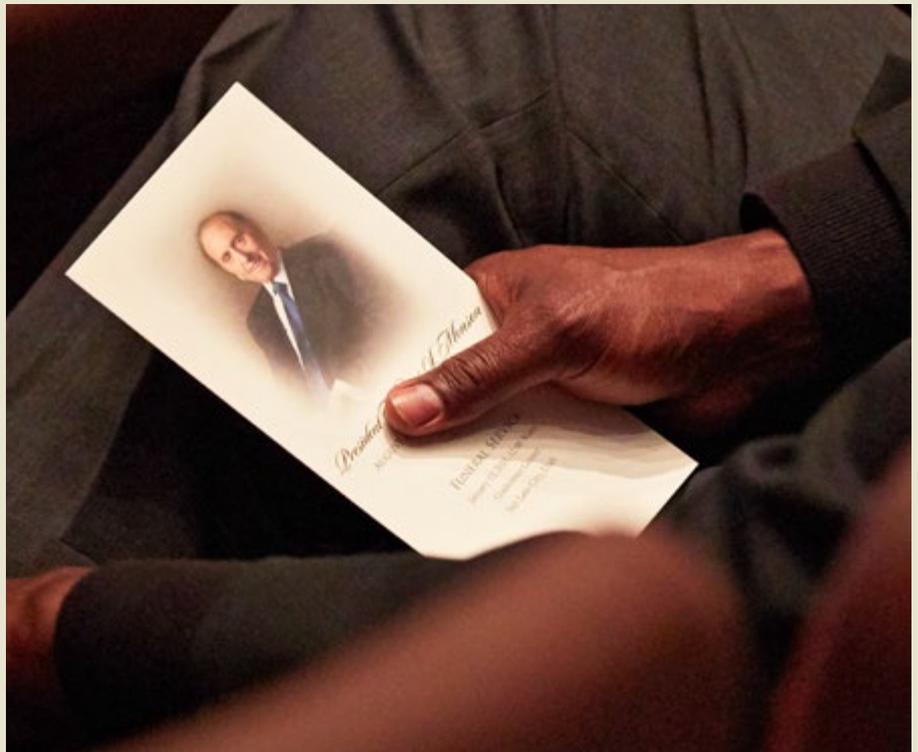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주님의 강한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장례식에서 말씀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마음은 온통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그분의 말씀과 지도력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분의 친절을 경험하여 그분을 사랑했는지는 오직 그 사람들을 돌보도록 회장을 보내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임기 동안 매우 자주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문하곤 하셨는데, 방문을 가져서는 그다음으로 찾아봐야 할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고, 다음 장소에 가셔서는 또 그다음 사람에 대한 느낌을 받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꽤 자주 “오실 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방문을 받는 분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며, 주님도 어쩌면 알고 계셨을 테지만, 몬슨 회장님은 처음엔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실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실 만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몬슨 회장님의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랑은 일찍 시작되었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했습니다. 개인적인 봉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이끄는 동안, 그분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습니다. 이사야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핵심인 금식의 법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이 율법은]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 너는 물 든 통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7~9, 11)

일생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동안 몬슨 회장님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셨고, 그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기도로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몬슨에게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종종 우리가 충실하게 그분을 섬길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참됨을 그분은 경험을 통해 아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यो,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यो,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이런 약속이 사실임을 알았기에 몬슨 회장님은 낙관적이었으며 또한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분은 주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위험하거나 험난해 보이는 상황에 들어가야 할 때, 다른 이들은 두려워하였으나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앞서 가셨으며 천사들이 그를 둘러 있어 그를 받쳐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매우 감동적인 말씀을 전한 그분의 딸 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여러 시간 전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함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 곁에는 그분 주변을 둘러싸고 그를 받쳐 주는 인간 천사들이 있었고, 아마 다른 천사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에 앞서 영의 세계로 가신 부활하신 구주께서 두 팔을 뻗고 기다리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증드리건대, 제가 느낀 타고르는 간증은, 바로 문슨 회장님은 주님을 알았고, 그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과 아버지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 바치는 동안 속죄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도 그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슨 회장님은 베냐민 왕이 우리에게 권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원편에 있지 않게 하고, 너희를 부를 음성과 또한 그가 너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 바라노라.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능하신 주 하나님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치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노라.”(모사이야서 5:12~13, 15)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간증합니다. 그의 죄 없는 삶과 무한한 속죄를 통하여, 필멸의 삶을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온 천사들의 성역을 통해 신권의 모든 열쇠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열쇠들은 끊임 없이 문슨 회장님에게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족들을 영원히 하나로 인봉하는 권능입니다. 문슨 회장님은 이를 아셨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 신권 권능은 지상에 있는 구주의 교회에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문슨 회장님과 자매님은 그 권능으로 인봉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족의 재회를 고대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모두 더 나아졌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사 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 여러분과 친구 여러분, 저의 지도자이고, 조연자이고, 사랑하는 친구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장례식에서 그분에 관해 말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정겨운 분을 50년 이상 알고 사랑했습니다.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본부 직원들을 대신하여 몬슨 회장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회장님의 가족인 토마스, 앤, 클라크와 그들의 배우자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의 깊은 사랑과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앤 엠 딥 자매님, 디이터 예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과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몬슨 회장님은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내며 많이 울었고 앞으로도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의 슬픔이 진정되며, 주님의 쓴 잔으로 우리는 헤어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는 부활을 현실로 만들며, 주님의 속죄로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몬슨 회장님이 사랑하는 아내 프랜시스 자매님과 재회하셨음을 알고, 또 우리도 언젠가 그분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음을 알기에 기쁩니다.

몬슨 회장님이 운명하신 이후, 언론은 그분의 삶에 대한 기억을 잘 준비하여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참 기뻐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고관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조의와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인생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 분에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모두 더 나아졌습니다. 또한 교회도 더 나아졌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성장의 신화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1963년 사도로 성임된 이후로 교회 회원 수는 210만 명에서 1600만 명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현직 전임 선교사의 수는 5700명에서 7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겨우 열두 개였던 성전은 현재 159개이며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몬슨 회장님은 끊임없이 개인에 집중했습니다. 그분은 “소홀히 해왔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 주고”, “사랑해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해야 할





몬슨 회장의 가족이 관에 노란 장미를 놓으며 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다.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회장은 세상의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분은 이타심의 모범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온전히 구현되었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들여 사람들을 방문하고 축복하고 사랑했습니다. 쇠약해지는 중에도 사역을 계속하셨으며 병원과 노인 시설들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몬슨 회장과 함께 많은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위대한 목표들을 이루어 내신 일화를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1985년 저는 유럽의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오랫동안 몬슨 회장이 맡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그 힘든 일의 상당 부분에서 저는 그저 그분의 후임 동반자였을 뿐입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몬슨 회장은 동독의 정부 지도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거의 20년을 노력하셨습니다.

1988년, 그분과 저는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몇 명과 함께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에 갔습니다. 50년 이상 선교사들에게 문을 닫고 있던 그 나라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의 활동을 허가해 주겠다는 질문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나라의 합당한 장로들이 다른 곳에서 주님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중대한 모임이 있었던 1988년 10월 28일은 흐리고 쓸쓸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동독의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와 그의 보좌관들을 만났습니다. 서기장은 공산주의의 좋은 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며 몬슨 회장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담대하고도 온화하게 우리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유익이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몬슨 회장의 호소가 끝나자 모두들 숨을 죽이고 호네커 서기장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을 여러 해 동안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에 관한 당신의 요청을 허가합니다!”

우리가 모임 장소를 떠날 때 잠시 구름의 갈라진 틈으로 나온 해가 우리 위로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하늘에서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몬슨 회장의 필멸의 삶이 끝난 시점에 우리는 주님께서 선지자 니파이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작별을 고하는 이 사랑하는 지도자에게도 똑같이 주실 것이라고 느낍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이여],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네게 준 말을 네가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이제 네가 것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와 네 가족을] 영원히 복주[리라.]”³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가르쳤고, 선지자로서 간증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가 지녀야 할 용기와 친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계시를 받았고 선지자로서 응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살았고 선지자로서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고, 이 성스러운 일이 참되다는 간증을 자신의 생명으로 인봉했습니다. 몬슨 회장이 이 연단에서 참으로 여러 번 거듭하여 드린 간증에 겸손히 저의 간증을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23:11.
2. 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3. 힐라멘서 10:4~5.



발췌한 가르침

다음은 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며,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영의 속삭임을 따름:

“인생에서 제가 아는 가장 감미로운 경험은 영의 지시를 느끼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 후, 나중에 그것이 누군가의 기도나 필요 사항을 성취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부름 시키실 일이 주님께 있으면, 톰 몬슨이 달려가서 그 심부름을 할 것임을 주님이 아시기를 바랍니다.”(주님의 심부름을 행하며 [DVD, 2008])

신성한 도움을 받음: “이 사업은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저의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62쪽)

타인에 대한 사랑:

“가장 중요한 것에는 거의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봉사: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성전 축복: “아직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련된 모든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으뜸 되는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습니다.”(“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해 매일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하려고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필멸의 생활 너머에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헤어지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114쪽.)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사항을 아시므로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
 작거나 하찮은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염려하십니다.”(“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88쪽.)

시련: “가슴이 에이는 슬픔을
 경험하거나 비탄에 젖거나
 극한까지 시험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삶을
 재편하여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즉, 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더 이해력이 커지며,
 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큰 간증이 생겨납니다.”(“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7쪽.)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외모나, 가진 것 또는
 은행 계좌에 찍힌 예금액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나
 행복할 때, 낙담할 때나 희망에
 차 있을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23~124쪽.)

준비: “우리는 혼란스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면, 준비의 시기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리아호나*,
 2014년 9월호, 5쪽.)

모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원리와
 지침에서 세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일반
 대중과는 구별될 것입니다. ...
 세상 대부분의 곳에서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을
 밝힐 빛과 영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88쪽.)

선택: “다수의 동의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기를
 바랍니다. 쉽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택이든 저런 선택이든,
 매일 우리 삶에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자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늘 분향으로 돌아가는 때때로
 험난한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들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더 잘 끌어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친절,
 자애, 사랑”,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7쪽)

몰몬경: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도록 간청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의 음성을 듣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으며,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몰몬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자주 기도하며 신중하게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일단 결혼을 하면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해야 합니다. 삼촌
집에서 본 조그만
액자 속 글귀에서
저는 값진 조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사랑하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1년 4월 연차 대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성스럽게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2015년 4월 연차 대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